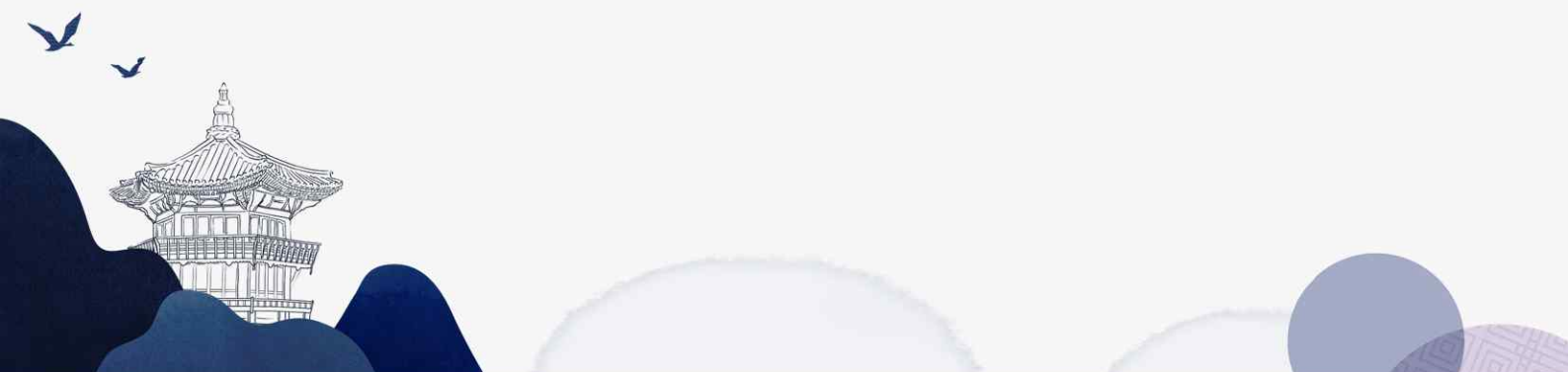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7
4	讲义	58
5	퀴즈	78
6	토론	81
7	자료	83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은 한국의 고전 가운데 6종의 문헌을 선정하여 저술 배경과 의의를 살피고 핵심적인 부분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고급 교양 강좌이다. 6종의 고전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헌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을 깊이 연구하고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각각의 문헌마다 2주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기 고전의 저자, 저술 배경, 의의 등을 소개하는 '이해'와 고전의 본문을 강독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읽기'로 구성된다. 6종의 문헌을 다룬 강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일부 문헌만 학습하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강생들은 본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02

학습목표

- (1) 한국 고전의 이해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2) 한국 고전의 감상을 통해 고전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기록문화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얻는다.
- (3) 한국의 고전을 매개로 삼아 한국 및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 및 출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03

기대효과

이 강좌는 한국의 고전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과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 다루는 6종의 고전 가운데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문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문헌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별화된 고급 교양을 얻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문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번역서를 간행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전통적인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강좌에서는 《양화소록》, 《경민편》, 《연병지남》, 《한경지략》, 《만국사물기원역사》, 《한국통사》의 6종의 고전을 각기 2주씩 강의한다. 이들 고전은 화훼 재배와 감상, 백성의 교화, 병법, 풍속과 문화, 백과사전적 지식,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이 그 저술 배경과 저자 등에 대한 지식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감상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와 사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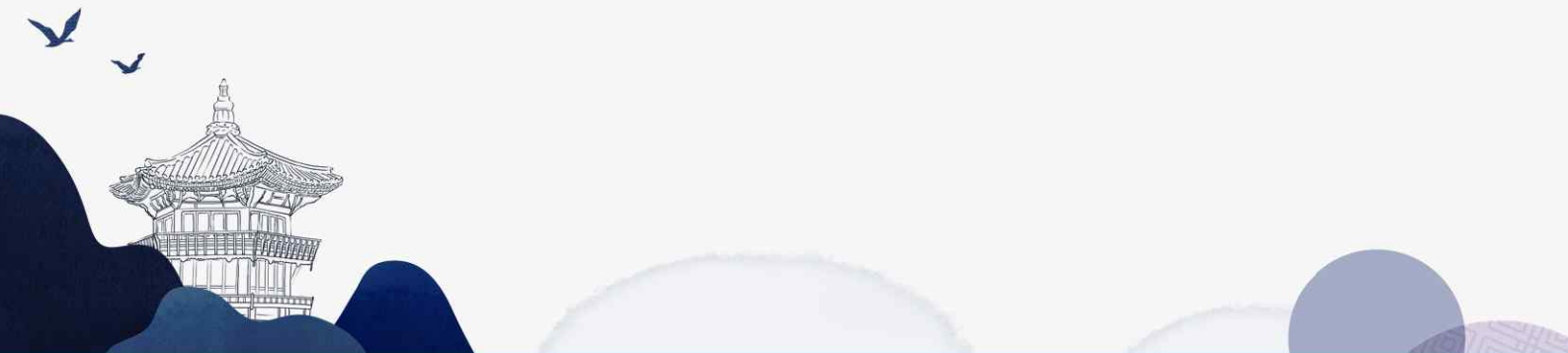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주차별 구성

1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2주차	《양화소록》 읽기
3주차	《경민편》의 이해
4주차	《경민편》 읽기
5주차	《연병지남》의 이해
6주차	《연병지남》 읽기
7주차	《한경지략》의 이해
8주차	《한경지략》 읽기
9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의 이해
10주차	《만국사물기원역사》 읽기
11주차	《韓國痛史》의 이해
12주차	《韓國痛史》 읽기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

주차

양화소록의 이해

1-1

서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 읽는 한국의 고전>에서 한국 원예와 분재의 고전인 『양화소록』의 강의를 맡은 이종묵입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강희안의 '양화소록의 이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백악산 기슭의 삼청동에 있던 옥호정이라는 별장을 그린 그림입니다. 작은 산과 개울을 끼고 있는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집은 그 주인이 순조 연간의 문인 김조순입니다. 19세기 세도정치의 문물 연 인물이니 이 정도 별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이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대략 19세기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봉우리 위에는 큰 바위가 있고 '일관석(日觀石)'이라 적혀 있는데 이 글씨가 실재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출을 본다는 뜻입니다. 익히 알려진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흔다."에서 보듯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태산이라 생각했습니다. 태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이 일관봉입니다. 그러니 백악이 태산이 되고 일관석이 일관봉인 것입니다. 옥호정은 태산의 미니언처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옥호동천(玉壺洞天)'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옥호(玉壺), 옥으로 만든 항아리에 찬 얼음이 들어가 있다는 말로, 고결한 인품을 상징합니다. 동천(洞天)은 골짜기라는 뜻으로 즉 옥호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옥호정이 있는 이 골짜기 전체를 뜻합니다.

그 좌측에도 글씨가 보이는데 을해벽이라 적혀 있습니다. 을해년 1815년 주인 김조순이 글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시가 한 수 적혀 있습니다. '산광여수고 석기가장년'인데, "산빛은 태곳적 같은데, 바위의 기운은 긴 세월 가졌구나."라는 뜻입니다. 김조순의 문집에 이 시가 보이는데 '비래정'이라는 정자에서 쓴 작품입니다.



비래는 신선이 날아올 것 같다는 뜻입니다. 비래정에 앉으면 신선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을해벽 아래 초가 정자가 바로 비래정입니다. 다시 그 우측에 '해생천'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중국의 해산에는 물맛이 좋은 샘이 있습니다. 이곳의 샘물도 맛이 좋아 해생천이라 한 것인데, 은혜로운 샘물이 나온다는 뜻을 표방한 것입니다.

옥호정에는 안채와 사랑채 등 본격적인 건물 외에, 정자가 여럿 보입니다. 해생천 우측의 초가는 산반루인데, 산의 반쯤 되는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아래 대나무로 기둥을 세운 죽정도 보입니다. 또 좌측에 기와로 인 정자는 첩운정인데, 첩첩의 구름이 덮여 있는 첩첩산중의 정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조선 시대 문인의 정원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보겠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괴목'이라고 하는 왜나무와 '송'이라고 적어 놓은 소나무가 문처럼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취'라고 적어 놓은 것은 취병인데, 푸른 병풍이라는 말입니다. 바깥에서 안을 엿보지 못하게 나무로 병풍을 쳐놓은 것입니다. 비래정 아래에는 '반송'이라 적힌 소나무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풍 대'라 적혀 있으니 이곳의 나무가 단풍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령에 올려놓은 것은 포도나무라서 포도시령이라는 뜻의 '포도가'라 표시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에는 화분이 여럿 놓여 있습니다. 노송과 괴석을 올렸습니다. 수조에는 연꽃이 있습니다. 그 곁에 작약, 영산홍, 파초 등을 땅에 심어놓았습니다. 우측 상단에도 계단식 화단이 있어 작약을 심어놓았습니다. 계단식 화단은 남산한옥마을에 가면 담장 아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 문인들이 꿈꾸는 정원이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하게 소개한 것은 조선 시대 정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꽃나무가 가득한 정원은 조선 시대 운치 있는 문사의 집이라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집은 명례방, 지금의 명동에 있었습니다. 당수도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수레와 말이 오가는 소리로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좁아 연못을 따로 파지도 못하고 또 웅은 정원을 가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당의 반 정도를 잘라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구해 이를 화분에 옮겨 심어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안석류라는 품종의 석류 네 그루, 반송처럼 옆으로 가지가 퍼지는 능장류라는 품종의 석류 두 그루, 그리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꽃석류 한 그루를 두었습니다. 조선 선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매화도 두 그루 놓았습니다. 그밖에 치자나무 두 그루, 동백나무 한 그루, 벽오동 한 그루, 향나무 한 그루, 목련 한 그루를 화분에 심어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금잔화, 은잔화라고 하여 금빛 나는 수선화와 은빛 나는 수선화를 각기 심은 화분 넷과, 이 둘을 하나에 함께 심은 화분도 하나 있었습니다. 특히 국화는 각기 다른 품종으로 무려 열여덟 개나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로 화단의 난간을 세웠습니다. 화분에 심어 마당에 놓은 꽃과 나무의 종류가 대단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양화소록의 주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정원을 꾸미는 꽃과 나무입니다. 이 그림은 1800년대 문인의 집입니다. 특히 정약용의 집 마당에 있던 화분의 꽃과 나무는 이 강의에서 다룰 양화소록에서 거의 다 다룬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양화소록이 편찬된 조선 초기 정원을 볼 수 있는 그림이 없어 부득이 옥호정도(玉壺亭圖)를 보여드렸습니다. 조선 시대 문인들의 집은 결코 초라하지 않고 이처럼 화려하였으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품종의 꽃과 나무를 화분에 올려 집을 꾸몄고, 또 이를 위해 상당한 원예의 기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양화소록을 중심으로, 이 강의에서는 이보다 400여 년 전 조선의 문인들이 화분에 꽃과 나무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살피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예의 고전 양화소록과 강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

원예의 고전 양화소록과 강희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예의 고전 양화소록과 강희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 문인들의 꽃에 대한 사랑은 유별난 데가 있었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뜻에서 집 이름을 화암이나 백화헌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화암은 18세기 유박이라는 꽃에 미친 사람의 집 이름인데, 화암수록이라는 꽃나무와 관련한 저술을 남긴 사람입니다. 또 백화헌은 고려말의 문인 이조년의 호입니다. 화암은 꽃의 집이고 백화헌은 백 가지 꽃이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려나 조선 시대 문인들은 매화나 연꽃, 국화, 대나무 등 선비가 좋아하는 꽃이나 나무의 이름을 따거나, 그러한 꽃과 나무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의 구절을 따서 집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도 그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정구는 매화를 백 그루 심고 그 이름을 백매원이라 하였고, 조선말의 화가 조희룡은 자신의 집을 매화서옥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그린 매화서옥도는 크고 화려하여 당시나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꽃을 의인화해서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매화는 맑은 손님 청객이라 하고, 난초는 그윽한 손님 유객이라 하였으며, 국화는 오래 사는 손님 수객이라 했습니다. 또 국화는 아름다운 벗 가우라 하였고, 연꽃은 깨끗한 벗 정우라 하였으며, 매화는 맑은 벗 청우라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퇴계 이황은 매화를 형이라는 뜻에서 매형이라 불렀고 매화와 시를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을 뜬 날, 매형에게 불결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면서 옮겨놓으라는 유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꽃과 나무를 사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꽃과 나무를 재배하는 데 필요한 실용서가 등장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군방보와 같은 화훼 전문서적이 16세기 등장하였거니와, 그보다 앞선 송나라나 원나라 때 국화, 매화, 대나무, 작약 등 다양한 꽃을 대상으로 한 실용서가 등장하였습니다. 국화를 다룬 국보, 매화를 다룬 매보, 대나무를 다룬 죽보, 작약을 다룬 작약보 등이 그러한 책입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단일 품종만을 다룬 책입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저술에 못지않은 화훼에 대한 실용서가 있었으니 바로 1449년 무렵 강희안이 편찬한 원에서 '양화소록'이 그려한 책입니다. 양화소록은 16종의 꽃나물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원에서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선에서 꽃나물과 관련한 저술에서 이 책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조선 후기 화훼에 대한 저술 중에서 조선 시대 참고문헌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양화소록입니다. 이런 책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소록을 편찬한 강희안(姜希顔 1418-1465)은 자가 경우, 호가 인재입니다. 그의 집안은 본관이 진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이름난 관료를 여럿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조부 강희백은 고려말에서 조선 초의 문인으로 정2품의 정당문학을 지냈습니다. 진주에 있는 단속사에 육백 년 이력을 가진 매화나무가 있는데 이를 정당매라 부릅니다. 바로 이 분이 심었다고 합니다. 또 부친 강석덕은 심온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세종도 심온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세종과 강석덕은 동서 사이가 됩니다. 또 그 아들 강희안의 이모부가 세종입니다.

아우 강희맹은 조선 초기 농업사 연구에 중요한 금양잡록의 저자입니다. 또 진산세고를 편찬하였는데 이 책은 조부 강희백과 부친 강석덕, 형 강희안의 시문을 모은 책으로, 3대의 문집을 함께 묶어 낸 것으로 이를 세고라고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이런 3대의 문집을 엮은 세고가 처음으로 강희맹에 의해 편찬된 것입니다.

이 책은 1474년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권4가 바로 양화소록인데, 가장 선본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권3이 인재시고인데, 강희안의 문집입니다. 66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한 것도 있고, 스스로 가꾼 꽃나물을 읊은 시도 제법 있습니다.

강희안은 젊은 시절 규장각에서 주로 근무하며 중요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학문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시와 글씨, 그림에 모두 뛰어나 삼절로 일컬어졌습니다. 강희안의 문집 인재시고에는 당대 최고의 문인 서거정이 발문을 붙였는데 이 글에서 강희안이 시서화에 일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서거정은 강희안의 시가 당나라 때의 뛰어난 시인 왕유(王維)와 위응물(韋應物)과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왕유나 위응물은 모두 산수 간에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맑은 미감을 특징으로 하니, 강희안의 시도 그러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그의 시를 읽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며 청신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는 진의 왕희지(王羲之)와 원의 조맹부(趙孟頫)를 겸한다고 했는데, 왕희지는 고금 최고 최고의 서예가로 서예의 성인이라는 뜻으로 서성으로 불립니다. 두보를 시성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맹부는 왕희지 이래 최고의 서예가로 평가되며 그의 글씨를 조맹부체라 하여 고려 말과 조선 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강희안의 글씨는 물론 이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거정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스스로 오묘한 이치를 터득했다고 했습니다. 명나라에서 보낸 옥새에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 영원히 후세에 번창하리라”라는 뜻의 ‘체천목민 영창후사’가 새겨져 있었는데 바로 그의 글씨였다고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옥새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새의 글씨를 썼다는 점 자체로 그의 글씨가 어느 정도로 뛰어난지는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을해자라 하여 세종 때인 1455년 금속활자를 주조하였는데, 당시 가장 뛰어난 강희안의 글씨를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을해자는 갑인자와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금속활자인데, 그의 서법을 을해자로 찍은 책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송의 곽희(郭熙)와 유도권(劉道權)의 풍모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당대 최고의 화가로 평가된 인물입니다. 곽희와 유도권은 산수화의 대가로, 조선 초기 화풍이 이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희안의 문집을 보면 아름다운 여인을 그린 여인도와 논밭을 경작하는 그림인 경운도를 그렸고, 지리산 청학동과 평안도 청천강을 그린 족자는 천하의 보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지금 전하는 그림으로는 고사관수도가 있는데 곧 물을 바라보는 선비를 그린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로 검색하면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강희안과 신부인 등이 함께 그린 그림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양화소록에 나오는 괴석이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괴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화분이 여럿 놓여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릴 노송입니다. 좌측에 검은빛의 대나무가 보이는데 오죽이라 합니다. 역시 양화소록에 등장합니다. 강희안이 스스로 꽃과 나무를 즐겨 키우고 괴석을 좋아하였기에 그림이 더욱 생동감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안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강희안은 참으로 꽃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날마다 글을 읽고 꽃을 키우는 일을 좋아하였습니다. 출근하는 시간이나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때를 제외하면 꽃을 키우는 일로 소일하였습니다. 아침저녁 꽃을 돌보다 보니 절로 꽃을 피우는 법을 터득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방법을 참고하기도 하였는데, 예전 방법이 없으면 이리저리 물어보고 또 자신의 경험을 더하였습니다.

남산 아래 있던 강희안의 집 이름은 사우정(四雨亭)입니다. 사우정이라는 말은 조선 시대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선도의 오우가(五友歌)에서 보듯 비 '우(雨)'가 아닌 벗 '우(友)'자를 사용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뜻이 있습니다.

강희안보다 50년 후배인 세종의 손자 부림군 이식이라는 사람도 사우정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정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우는 네 가지 벗이라는 뜻입니다. 비 '우'자와 벗 '우'자는 음이 같기에 살짝 바꾼 것인데, 두보가 이런 장난을 한 바 있습니다. 강희안이 왜 집 이름을 사우정이라 하였는지 밝혀놓지 않았지만 아마 같은 뜻이었을 것입니다.

부림군 이식의 네 벗은 매화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등 꽃이 아름다운 네 종이었었는데, 강희안 이 벗으로 삼은 식물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희안의 사우정에도 소나무, 대나무, 국화, 매화, 난초, 서향화, 동백나무, 석류나무, 굴나무, 창포 등 다양한 꽃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 소나무, 대나무, 국화, 매화를 네 벗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 서향화는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많은 사랑을 받은 꽃이고 지금도 한국에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흰색 혹은 황색, 보라색 등의 꽃이 한겨울에 피는데 향이 무척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도 식물도감에서 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석류나무나, 동백나무나 굴나무입니다. 굴은 열매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서울에서 키우기 어려운데 당시에는 화분에 담아 온실에서 재배한 것입니다. 그만큼 재배기술이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강희안은 많은 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벗이 난초와 대나무 화분을 보내주면 감사의 뜻으로 굴나무와 함께 시를 지어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귀한 꽃이 많아지자 벗들도 꽃 구경을 하러 왔고, 혼자 있어도 꽃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매화가 피면 그 아래에서 혼자 술을 따르면서 시를 지었고 대나무를 심고는 그 흥을 시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의 시에 보면 “근래에 여러 꽃을 키우는 법을 배워서, 땅과 화분에 각기 심어 좋은 곳 따랐네”라 하였습니다. 꽃을 재배하는 기술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화소록을 편찬할 만큼 학문과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화소록은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편찬한 책입니다.

『양화소록』은 제일 앞에 강희맹과 강희안의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강희맹은 형 강희안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들보다 앞서려 하지 않았고, 인맥을 통하여 승진하려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꽃 가꾸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쓰이지 못하였기에 양화소록을 편찬하여 은미한 뜻을 깃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원예학을 넘어 인문학적 성찰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점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강희안은 1449년 8월 종친이 아닌 왕실 인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부지돈녕에 임명되었지만, 일이 없는 직책이라 아침 조회를 마치거나 아침저녁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는 여가에 다른 일은 모두 물리치고 꽃을 기르는 것을 일로 삼았고, 친구들이 기이한 꽃을 구한 것이 있으면 가져다주었으므로 많은 꽃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모란이나 작약과 같이 땅에 심을 수 있는 것과 화분에 심는 꽃은 기르는 방법이 다른 데다, 이미 중국 문헌에 자세히 나오므로 따로 다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노송, 만년송, 오반죽, 국화, 매화, 난해, 서향화, 연꽃, 석류꽃, 치자꽃, 사계화, 산다화, 자미화, 왜철쭉, 굴나무, 석창포 등 16종의 식물에다 괴석을 붙여 총 17종의 정원을 꾸미는 꽃과 나무, 돌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스스로 밝힌 대로 괴석과 함께 모두 화분에서 재배하는 식물들입니다.

여기서 노송은 화분에서 재배하는 조그마한 소나무입니다. 노송이라 하면 낙락장송을 떠올리시겠지만, 지금도 식물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과 몇십 Cm 크기의 작은 소나무입니다. 앞서 강희안의 그림에서 화분에 심겨진 그 소나무입니다. 만년송은 만년을 자랐으니 엄청나게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산지대에서 누워서 구불구불 자라는 향나무를 이룹니다. 누운향나무라고도 하며 이를 캐서 화분에서 키운 것입니다.

오반죽은 오죽이라고도 하는데 몸통이 검은 대나무입니다. 난해는 난초와 혜초인데, 혜초는 난초보다 잎이 조금 더 큰데 향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흔히 보는 것은 난초가 아니라 난화입니다. 굴원의 글에 보이는 진짜 난초는 조선에서 극히 귀해 중국에서 가짜를 구입해 왔다는 기록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진짜 난초는 꽃뿐만 아니라 줄기와 잎에서도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서향화는 앞서 보았습니다. 사계화는 월계화라고도 하는데 남쪽 지방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피며 장미와 거의 흡사합니다. 산다화는 동백이고 자미화는 배롱나무, 곧 목백일홍을 가리킵니다. 석창포는 시냇가나 습한 바위틈에 자라는데 난초처럼 향이 아름답고 잎이 가름합니다. 꽃은 노란색을 띤 푸른색입니다. 나머지는 지금도 보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화소록에는 17종에 이어 마지막에 꽃과 나무를 화분에서 재배하는 법, 꽃을 빨리 피게 하는 법, 꽃이 싫어하는 것, 꽃을 키울 때 취해야 할 점, 꽃을 보호하는 법, 화분을 배열하는 법, 종자나 뿌리를 보관하는 법, 꽃을 키우는 뜻 등의 항목을 더 두었습니다. 중국의 문헌을 일부 인용하면서 자신이 체득한 기술을 보탠 것입니다. 분노를 주는 방법과 꺾꽂이를 하거나 접을 붙이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그중에는 중국 문헌에 나오는 것은 조선에서는 맞지 않아 다른 방식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뚝을 물에 우려 뿌리면 사나흘 후에 바로 꽃이 핀다고 하였지만, 나무에 따라 말뚝을 뿌리면 죽는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또 꽃이 효자와 임산부를 싫어하여 이들이 손으로 가지를 꺾으면 몇 년간 꽃이 달리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믿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 말은 중국 문헌을 인용한 것입니다. 화분을 배열하는 것이나 꽃나무를 키우는 뜻 등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양화소록은 당시 다양한 꽃나무를 화분에 담아 키우는 방법을 적은 책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언급한 꽃나무는 서울에서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동백이나 굴나무를 화분에 키우는 데 성공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롱나무 화분에 키우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가요? 강희안의 꽃나무 키우는 솜씨가 대단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화소록과 강희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화소록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양화소록의 체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원예의 고전인 양화소록과 강희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화소록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소록은 기본적으로 먼저 해당 꽃나무에 대한 명칭 등 일반적인 사실이나 관련 문학 작품을 적고, 이어서 어떻게 재배하는지, 어떤 화분을 사용하는지, 온실에 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장 실용적인 지식을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문학적 성찰을 보여주는 수필 하나를 붙이기도 합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생각하는 것이 예전 학문의 특징인데, 앞으로의 학문도 이러한 통합정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연꽃을 대상으로 양화소록의 체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앞서 소개한 목판본 진산세고에 실린 양화소록입니다. 성균관대에 소장되어 있는데 불법 복제를 막으려고 표시를 해둔 것이 눈에 걸리기는 합니다만, 내용 자체는 보물로 지정된 것과 동일합니다. 성균관대 도서관 사이트로 들어가 검색하면 바로 이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연화, 곧 연꽃을 소개한 부분입니다. 먼저 꽃나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중국 문헌에서 인용합니다. 여기서는 이아라는 고대의 중국 문헌을 인용했습니다. 연꽃의 부위에 따른 명칭을 소개했는데, 줄기를 가, 잎은 하, 꽃은 함담, 열매는 연, 뿌리는 우, 씨는 적이라 부른다고 했는데, 이아를 찾아보면 줄기와 잎의 한자 표기는 뒤에 쓴 것이 옳습니다.

이어 주렴계의 애련설이 보입니다. 또 송나라의 증단백이라는 사람이 연꽃을 깨끗한 벗 정우로 불렀다는 기록을 옮겼습니다. 도산서원에 가면 정우당이라는 뜻이 있는데 곧 깨끗한 벗 연꽃이 있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정우'는 연꽃의 별칭입니다.

주렴계의 애련설은 위낙 명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낭송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홀로 연꽃을 사랑하노니, 진흙탕에서 자라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오염하지 않으며, 가운데는 비고 바깥은 곧으며, 냉쿨이 뻗어나가지도 않고 가지가 벌어지지도 않으면서, 향기는 멀리 퍼져나갈수록 더욱 맑고, 곳곳하고 맑고 자라나,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가까이 두고 즐길 수는 없다. 연꽃은 꽃 중의 군자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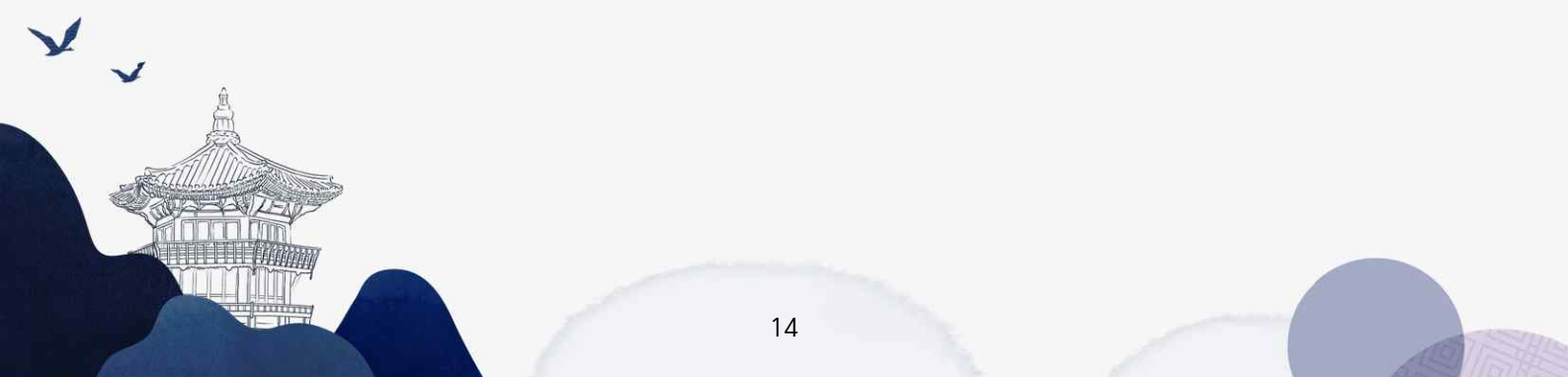
주렴계의 애련설은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깨끗함을 유지하고 그렇다고 너무 오염하지도 않습니다. 가운데는 비어 있지만, 바깥은 곧으며 가시나 넝쿨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향기는 멀리 퍼져나가지만, 결코 고혹적이지 않고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비어 있지만 그렇다고 우유부단하지 않아 곧은 뜻을 잃지 않으며, 외유내강의 뜻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은 군자의 꽃이라 한 것입니다.

이 글은 조선 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못 곁에 있는 정자는 군자정이라 한 곳이 많은데 이 글에서 딴 것입니다. 군자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곁에 군자의 꽃인 연꽃을 심은 연못이 있어야 합니다. 연꽃의 이러한 정신을 벗으로 삼는다는 뜻에서 정우와 함께 우련이라는 이름의 서재나 정자도 제법 있었습니다. 또 주렴계를 경모한다는 뜻에서 경렴서원의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경렴서원은 경북 김천시 성대동에 있던 서원인데, 사람의 큰 스승 김종직이 경렴당이라는 서당을 지은 것을 기려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시대 문인들은 이 말을 참으로 사랑하여 구절마다 따서 연못 주변의 정자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탁청정, 원향정, 청원정, 청향정, 익청정이라는 정자도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애련설의 원문에서 어떤 글자를 따왔는지 보겠습니다.

‘탁청’, ‘향원’, ‘익청’처럼 원문 그대로 쓴 것도 있고 ‘청원’과 ‘원향’, ‘청향’처럼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 이름을 지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정에서 따서 정정정이라는 재미난 이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거정은 이 이름의 정자를 두고 자신의 호로 삼은 바 있습니다. 애련설의 뒷부분에 나오는 “연꽃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나와 뜻을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가?”에서 ‘동여’로 정자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본 사진에서는 애련설과 증단백의 글에 이어서 연꽃을 키우는 법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종련법, 곧 연실을 심는 법을 소개했습니다. 연실의 머리 쪽을 갈아 얇게 한 뒤 진흙으로 입힌 다음 마르면 연못에 넣는 방식입니다. 송나라와 원나라 때의 중국의 서적에서 상당 부분 가장 요긴한 방법을 찾아 옮기면서도, 조선의 재배법을 바탕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양화소록은 강희안 개인의 저술이면서 15세기 당시 조선의 원예학을 총 집성한 것이라 할 만합니다.





이어 연꽃이 꺼리는 것을 적었는데, 오동기름을 못에 뿌리면 모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분에 연꽃을 심는 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 못 안에 붉은 꽃과 흰 꽃을 함께 심으면 어느 하나가 시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또 직접 연꽃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강희안의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은 직접 실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도성 안 좁은 집에서 연못을 파기 어려우므로 큰 웅기를 땅에 파묻고 흰 꽃과 붉은 꽃을 각기 심는 방식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웅기 곁에 줄이나 부들, 개구리밥, 말과 같은 물푸를 함께 심고 작은 물고기 대여섯 마리를 풀어놓으면 진짜 연못 같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분연, 곧 화분의 연꽃이라 했습니다.

1692년 승정원에 근무하던 조덕린이 양화소록의 방식대로 화분에 연꽃을 심었습니다. 조덕린은 본관이 한양으로, 영조 때 승지를 지내다가 병으로 사직하고 낙동강 상류로 물러나 후학을 양성한 인물입니다. 그가 승정원에서 승지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승정원 마당 빈 곳에다 돌을 쌓아 단을 만든 뒤, 흰 모래를 깔고 잔디를 입힌 다음, 질화분 돌을 두고 물을 진흙과 같이 채운 다음 연꽃을 심었습니다. 막 무더위가 심하였는데 왕명을 기록하느라 눈이 아팠는데, 푸른 잎과 파란 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연꽃 향내가 자욱하게 옷에 스며들어 피로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소나기가 내려 높은 곳의 연잎이 빗물을 받아 옥구슬처럼 동글동글 맺혔다 떨어지는 것을 즐겁게 구경했다고 하였습니다. 교외의 식당에 가면 붉은 플라스틱 대야에 수련을 띄워놓은 것을 쉽게 봅니다. 조금만 더 정성을 쏟으면 강희안이나 조덕린이 만든 것처럼 멋진 작은 연못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꽃을 키우는 방식은 조선 후기에 더욱 발전합니다. 서유구는 양화소록을 인용하여 재배법을 설명한 후, 연꽃이 피기 전에 청대를 우린 물을 종이에 발라 꽃술 위에 바르고, 종으로 꽃술을 감싸주면 꽃이 파랗게 핀다고 했습니다.

서유구는 정조와 순조 연간 활동한 실학자로, 학술사에서 이름이 높은 분인데, 임원경제지라는 위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 책의 일부인 '예원지'가 꽃나무의 명칭과 재배법을 다룬 저술인데 양화소록의 성과를 계승하였습니다.



양화소록에는 연꽃처럼 동백나무도 씨를 심는 법을 소개했습니다. 동백나무는 꺾꽂이도 하였는데, 서향화 등 여러 품종도 그 방식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매화처럼 접을 붙이는 것도 있는데 그 방식이 지금도 정교합니다. 매화 접붙이는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지접이라는 방식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서향화를 이런 식으로 접붙이는데 가지를 잘라 화분에 드문드문 꽂고 그늘진 곳에 놓아두어 살아나면, 낮은 가지를 살짝 깎은 다음 굽혀서 땅에 묻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 역시 강희안의 시대에는 통상적인 것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배법을 다 소개한 후 강희안은 인문학적 성찰을 보여주는 수필 한 편을 실었습니다. 이 점에서 양화소록은 단순한 원예서를 넘어서 인문학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줄에서부터 연꽃을 심는 뜻을 다룬 수필입니다. 뜻이 고상한 글이니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명리에 골몰하여 고달프게 일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못한다면 무엇을 한 것이겠나? 관복을 벗고 속세의 먼지를 털고 떠나가, 산수 간에 소요하지는 못해도 공무의 여가에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빛 비치는 가운데 연꽃의 향기가 넘쳐나고, 줄과 부들의 그림자 어른거리며 작은 물고기들도 물풀 사이에 파닥거리는 즈음이 되면, 옷깃을 활짝 열고 산보를 하면서 시를 읊조리면서 배회하노라면, 비록 몸은 명예의 굴레에 매여 있다 하겠지만 정신은 물외에서 노닐고 정회(情懷)를 풀기에 충분할 것이다. 옛사람이 “조정과 시장에서 고삐를 휘두르며 바삐 다닌다면 답답한 마음이 생길 것이요, 한가하게 숲과 들판을 거닌다면 텅 빈 마음이 생길 것이다.”라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부귀영화와 권력을 위하여 편안한 날을 누리지 못합니다. 연꽃을 심어 구경하는 뜻은 잠시라도 여기서 벗어나고자 함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일지언정, 선선한 바람이 불고 달이 환하게 뜬 날 연못에 가서 연꽃을 구경하고 물에서 노니는 물고기, 물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산보 하면 몸은 도시에 있어도 마음은 절로 자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조정과 시장에서 고삐를 휘두르며 바삐 다닌다면 답답한 마음이 생길 것이요, 한가하게 숲과 들판을 거닌다면 텅 빈 마음이 생길 것이다.”라고 한 고인의 말을 인용했는데, 이 말은 왕희지의 난정집 서문에 보입니다.





왕희지는 앞서 강희안을 위시하여 조선 시대 문인들의 서법에서 모범이 된 인물로 유명합니다. 왕희지는 353년 당시의 명사들과 회계의 산음이라는 곳에서 계회를 가졌는데, 이때 지은 시를 모은 책이 난정집입니다. 여기에 서문을 지어 그의 멋진 글씨로 서문을 달았습니다.

후대 이를 본뜬 서첩이 글씨 쓰는 사람들의 교본이 된 바 있습니다. 아마 강희안은 왕희지의 이 말을 바꾸어, 숲과 들만이 아닌 조정과 시장에 돌아다니더라도 꽃나무를 사랑할 줄 알면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시원한 마음이 생겨날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연꽃을 재배하는 식물학적 정보를 넘어, 이런 성찰의 글이 함께 있기에 양화소록의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양화소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화소록을 지은 뜻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양화소록을 지은 뜻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양화소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화소록을 지은 뜻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꽃을 두고 인문학적 성찰을 한 수필을 읽어 보았습니다. 양화소록은 꽃마다 이런 수필을 붙였거니와, 양화소록의 제일 마지막에 붙인 '꽃을 키우는 뜻'이라는 글은 발문의 성격을 띤 것으로, 선비가 꽃과 나무를 키우는 뜻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추리면 이러합니다.

강희안이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엎드려 흙을 북돋워 나무를 심고 있는데 어떤 객이 찾아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묻습니다. 눈을 기쁘게 하다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옛사람들은 '완물상지'라고 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학자들이 경계하는 말입니다. 바둑이나 낚시, 악기 연주 등과 함께 꽃 키우는 것과 같은 취미 생활이 점잖은 학자의 마음공부에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상징으로 정치 개혁을 주창한 정암 조광조가 말타기를 좋아하는 사람, 화초 재배를 좋아하는 사람, 거위나 오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외물에 마음이 쏠려 집착에 빠지게 되므로, 끝내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비판하고, 이것이 이른바 완물상지라고 한 바 있습니다. 박학소인이라는 말도 같은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꽃나물을 키우는 지식이 많으면 군자의 덕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강희안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정말 그렇게 도덕만 내세우면 육체가 고목처럼 마르고, 마음은 썩대처럼 어지러워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꽃나물을 키우는 것이 공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물이 있고 제각기 이치를 담고 있는데, 이를 끝까지 탐구해야만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만물의 부림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말이 '관물성신, 지지의성'이라는 말입니다. 사물을 보고 자신을 반성하면 지식이 지극해지고 마음이 성실해진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이것이 꽃나물을 키우는 뜻이라고 한 것입니다. 조선 시대 학자들이 즐겨 쓰는 '격물치지', '관물찰리'가 바로 이 뜻입니다. 격물치지는 사물에 맞닥뜨려 지식을 도출한다는 말이고, 관물찰리는 사물을 관찰하여 진리를 살핀다는 뜻이니 지금에도 합당한 공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키우는 뜻을 소개합니다. 창관은 푸른 관을 쓴 관리라는 뜻으로 소나무의 별칭입니다. 소나무를 심는 것은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지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세한도에 적혀 있는 논어의 구절, 한 해가 저물어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화소록의 첫 장은 노송, 곧 정정한 소나무입니다. 앞서 양화소록은 해당 식물을 재배법에 이어 수필을 붙인다고 했는데, 소나무를 두고는 이런 수필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공주의 부마가 기괴한 노송 화분 하나를 구하였다. 하루는 시중드는 사람이 아부하여 총애를 받고자, 노송 화분 앞에 가서 칼을 꺼내 오래되어 묵은 가지를 자르고, 쭈글쭈글한 껍질을 벗겨내었다. 부마가 보고 놀라서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리하였는가?” 시중드는 사람이 아침하는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옛것을 제거하여 새것을 기르려 한 것입지요.” 부마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네모난 대지팡이를 깎아 둥글게 하고, 구리 화병 골동품을 씻어 하얗게 한다.”는 말이 이를 두고 한 것이구나.”내가 보니 후세의 신하 된 자들이 재상의 반열에 오르자마자, 모두들 경솔하게 옛 법을 개혁하고자 “옛 법은 폐단이 많아 새로운 법을 쓰는 것만 같지 못하다. 굳이 옛 것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는가?”라 하면서 아침에 만든 법을 다시 저녁에 고쳐 거의 옛 법이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었고, 국가는 그 때문에 위태하게 되었다. 어찌 시중드는 사람이 예전 것을 잘라 없앤 것과 다르겠는가!

어떤가요? 옛것을 제거하여 새것을 기른다는 뜻의 제구양신(除舊養新)이 오히려 폐단을 초래합니다. 없앨 ‘제(除)’, 옛 ‘구(舊)’, 기를 ‘양(養)’, 새 ‘신(新)’자입니다. 조급하고 서투른 개혁에 대해 일침을 놓은 글입니다. 이 글에서 네모난 대지팡이를 깎아 둥글게 한다는 식원죽장이라는 말이 재미납니다.

당나라 때 윤주의 감로사로 놀러간 이덕유라는 문사가 사각으로 각이 진 특이한 대나무 지팡이 하나를 그곳의 승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페르시아에서 생산된 것으로 사각형의 대지팡이로 마디마다 수염과 이빨 문양이 새겨진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른 승려는 둥글게 깎고 까맣게 칠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를 두고 “네모난 대지팡이를 둥글게 깎고, 끊어진 문양을 한 거문고를 까맣게 칠하네”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오래된 거문고는 여러 가지 문양의 균열이 일어나는데 이를 매우 진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낀다고 하여 옷칠을 하고 까맣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또 구리 화병 골동품을 씻어 하얗게 한다는 구절은, 파랗게 녹이 슬어야 멋이 나는 구리 화병을 깨끗하게 씻어 하얗게 만든 어리석음을 말한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살풍경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강희안이 소나무를 보고 깨달은 공부입니다.

앞서 본 대로 연꽃은 더러운 환경에도 물들지 않는 군자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국화는 다른 꽃이 다 지고 나서야 서리를 이기고 피어납니다. 다른 꽃과 경쟁하지 않는 사양하는 마음, 서리와 같은 시련을 이겨내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서 송나라 주돈이의 애련설을 읽어보았는데, 이 글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화는 꽃 중의 은자요, 모란은 꽃 중의 부귀자요, 연꽃은 꽃 중의 군자다... 아, 국화를 사랑하는 이가 도연명 이후로 또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드물다.”라고 하였습니다. 은자 도연명은 국화를 사랑하였기에 국화는 특히 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희안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득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연꽃을 눈으로 보되 마음으로 연꽃의 덕을 체득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풍모를 나의 덕으로 삼는다면 이익이 되는 것이 많고 마음이 호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값비싼 양탄자를 깔아놓은 고대광실에서 옥구슬과 비취를 장식한 여인을 끼고 풍악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는 기생을 불러 노는 자들은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심성을 도끼로 내려쳐 상하게 하며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을 싹틔울 뿐이니, 그에 비하면 꽃을 키우는 것이 더욱 낫지 않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희안 이후에도 선비들이 꽃나무를 키우는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장수를 누린 조선 중기의 학자 홍유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뜻을 크게 가져 사림의 종장 김종직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학자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76세에 혼인하여 아들을 얻었고 99세까지 장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재는 7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후학이 일찍 출세하려고 설치다가 병이 났고, 의학에 조예가 있던 홍유손에게 고민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이에 홍유손은 의약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후학이 좋아하는 국화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국화가 늦가을에 피어 된서리와 찬바람을 이기고 온갖 화훼 위에 홀로 우뚝한 것은 빠르지 않다는 점 때문이라고”라 하여, 조숙한 것보다 대기만성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18세기 실학자 신경준도 국화를 보고 성찰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신숙주의 아우 신말주의 후손인 신경준은 18세기 호남을 대표하는 실학자로 평가됩니다. 언어학, 지리학까지 달통한 인물입니다. 그의 고향이 전북 순창인데 신말주 이래 귀래정이 유명한 곳입니다. 신경준은 이곳에서 순원이라는 원림을 만들고 그곳에서 재배하는 식물에 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순원화훼잡설', 곧 순원의 원림에 있는 꽃나무에 대한 잡다한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저술 역시 강희안의 양화소록을 크게 참조한 바 있습니다. 양화소록에 인문학적 성찰을 보여주는 수필을 실었다고 하였는데, 신경준은 이를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식물에 대한 성찰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뒤에서 몇 작품을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신경준은 국화를 두고,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나 있다가 여러 꽃들이 마음을 다한 연후에 홀로 피어나, 바람과 서리에도 꺾이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양보하는 정신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국화의 미덕을 사양지심(辭讓之心), 곧 예(禮)에서 찾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희안이 양화소록을 편찬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꽃나무를 즐기는 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꽃나무를 즐기는 법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강희안이 양화소록을 편찬한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나무를 즐기는 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소록은 철학자가 되라고 쓴 책은 아닙니다. 꽃나무를 재배하는 법과 함께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양화소록에는 ‘꽃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조목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강희안은 꽃나무를 재배하는 뜻이 심지를 넓히고 덕성을 함양하는 방편이 되어야 하고, 이 때문에 운치와 절조가 없는 꽃은 굳이 완상할 필요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꽃나무도 아무 데나 마구잡이로 심어서는 안 됩니다. 울타리나 담장 곁에 되는데로 심어두고 가까이하다가는, 뜻이 매운 열사와 비루한 사내가 한 방에 섞여 있는 것과 같아 풍격이 크게 손상된다고 했습니다.

18세기 이덕무도 주목할 만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덕무는 연암 박지원과 뜻을 함께한 학자로 오늘날 인사동에서 오래 살면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문학을 사랑한 운치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분에 봉선화나 맨드라미 따위를 난잡하게 심어놓는다면, 남들이 비록 우아한 선비라 부르더라도 나는 반드시 속물이라 할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화분에 심어 키우는 꽃도 종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꽃에 대한 취향이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화분을 배열하는 법[排花盆法]’을 따로 둔 것도 그 뜻이 이어집니다. 적절한 햇볕을 받기 위해 그늘과 별이 모두 잘 드는 곳에 화분에 두어야 하되, 키가 큰 나무를 뒤쪽에, 작은 나무는 앞에, 너무 조그만 경우에는 의자에 올려놓아도 좋고 기와나 벽돌 위에 올려놓아도 좋다고 합니다.

또 의자에 올려놓을 때 마주 보도록 놓는 것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강희안은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화분을 반드시 마당에만 두어야 한다고 여겼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방이나 마루에 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 말기의 실학자 서유구는 임원경제지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문인이 조정이 아닌 산수자연에 살고자 하면 어떤 '경제'가 필요한지 기술한 책입니다. 여기서 경제는 경영과 비슷한 말입니다. 물론 상당한 내용은 양화소록을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루어보아도 좋겠습니다. 서유구의 이 책에서도 화분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꽃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화분은 벽돌 위에 놓으면 가장 좋다고 하고, 벽돌이 없을 때에는 기와 조각을 가지고 화분 아래쪽을 지탱하게 하되 약간 간격이 생기도록 하고, 황토로 사변을 발라주되 작은 구멍 하나만 남겨두어 공기가 통하고 물이 빠지도록 하면 더욱 좋다고 하였습니다.

서유구는 꽃나무를 배열하는 곳도 엄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무는 기암괴석 곁이 좋고, 길게 자란 대나무는 정원의 서북에 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꽃은 화단이나 연못가 어디든 좋지만, 홍도와 벽도는 동쪽 뜰 안에 심어 꽃가지가 담장을 스치게 하여 문을 열면 우아한 멋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 좋고, 벽오동은 동쪽 뜰에 심어 먼저 초승달 달빛을 받게 하는 것이 좋고, 절대 연못은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국화는 동쪽 울타리 아래 심는 것이 좋고, 매화는 물가의 땅에 심는 것이 좋으며, 파초는 물가의 정자나 시원한 누대 곁에 연꽃과 짝하여 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연꽃과 파초는 여름철 더위를 피하게 하는 피서의 식물입니다. 서유구의 글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초는 물가의 정자나 시원한 누대 곁에 연꽃과 짝하여 심는 것이 좋다.

고인이 “연꽃 만 그루를 심고 파초를 백여 평 그늘지게 해놓으면 사람의 영혼이 향긋해지고 살갗이 파랗게 된다.”고 하였으니, 더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름다운 대나무나 난초와 원추리를 가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부처손은 그늘을 좋아하니 파초 아래에 심는 것이 좋고, 목련은 특히 물가가 좋은데 서로 다른 종류를 심어 앞뒤로 꽃이 피도록 하려면 마구잡이로 심는 것이 좋다.

마당이 넓은 집이라면 따라 해보고 싶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파초와 연꽃을 나란히 심어 그 그늘에 있으면 영혼이 향긋해지고 살갗이 파랗게 된다는 말이 멋집니다. 그리고 대나무, 목련과 같은 큰 나무와, 원추리와 부처손 같은 작은 풀을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자세히 말해 놓았습니다. 현대의 조경 방식과 비교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강희안은 꽃나무를 재배하면서 운치를 강조했습니다. 양화소록에는 운치 있게 꽃을 완상하는 법이 여러 곳에 보입니다. 강희안은 등불을 비추어 꽃을 감상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난초를 상 위에 올려놓고 등불을 밝혀 그 그림자가 벽에 비친 모습을 감상하는 방식입니다. 수묵으로 그린 난초를 감상하는 듯한 효과가 생겼습니다.

강희안이 제시한 촛불 그림자로 꽃을 즐기는 법은, 이후에도 조선 문인의 운치 있는 꽃 감상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사림의 공적으로 간신열전에 실릴 만한 인물인 16세기 김안로는, 벗이 보내준 화분에 키운 매화를 등불에 비추어 비스듬한 가지의 성긴 그림자가 또렷이 벽에 어리는 것을 함께 즐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희로 하여금 이를 그림으로 그리게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국화에도 이러한 방법이 응용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실학자 정약용의 국화 그림자 놀이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 전반 이윤영, 이인상 등 호사 취향을 가진 문인들은 꽃을 완상하면서 얼음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윤영과 이인상은 화가로도 이름이 높은 문인입니다. 이들과 절친한 벗 중에 오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집이 오늘날의 계산동에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호사 취향을 가진 벗들이 와서 꽃나무를 운치 있게 즐겼습니다.

한겨울 매화가 피면 매화를 넣어둔 감실에 구멍을 내고 운모로 막은 다음, 이를 통하여 그 안에 핀 매화를 보았습니다. 투명한 운모를 통해 매화를 본 것입니다. 그 빛에 의하여 달빛 비친 매화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더욱 품위를 더하려고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주공이 문왕을 위하여 만든 문왕정을 본뜬 술과 그밖에 다른 골동품도 함께 진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밤에는 큰 백자 사발 하나에 맑은 물을 담아 문밖에 내다 놓고 열린 다음, 그 가운데 구멍을 내고 촛불을 넣고 불을 밝혔습니다. 얼음과 촛불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매화 감상이 된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탈 컵 속에 촛불을 밝혀 조명 효과를 높인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연꽃도 비슷한 방식으로 즐겼습니다. 이들의 맑은 꽃구경 대목을 묘사한 글을 두 편 읽어보겠습니다.

이윤영은 손으로 막 피려는 연꽃을 꺾어다 연잎이 있는 물에다 띄우고,
임매를 불러 유리 술잔을 꽃 가운데 두게 하였다.

이인상이 술잔 가운데 촛불을 붙였다. 불빛이 유리 술잔을 비추고, 술잔이 꽃을 비추었다.

꽃 빛과 물 빛이 다시 앞을 비추었다.

바깥은 푸르고 안은 은빛이며 밝고 환하였다.

이때 달이 서쪽 창문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빛을 흘리니 대낮처럼 환하였다.



임매가 다시 벽통음을 본떠 연잎에 술을 담고 줄기에 구멍에 내어 빨아먹었다.
먹고 싶은 대로 조금씩 빨아먹으니 향기가 입에 가득하였다.

겨울 오찬이 매화가 피었다고 하기에 나와 이인상 등 여러 사람들이 산천재로 가서 모였다.
매화 감실에 둥근 구멍을 뚫고 운모로 막았더니 흰 꽃잎이 흰하여 마치 달빛 아래 보는 듯하였다.
그 곁에 문왕정을 올려놓았는데 다른 돌그릇 몇 종도 또한 청초하여 마음에 맞았다.
함께 문학과 역사에 대해 담론하였다.
한밤이 되자 오찬이 백자 큰 사발 하나를 가져오더니 맑은 물을 담아 문밖에 내다 놓았다.
한참 지나고 보니 얼음이 2할 정도 두께로 얼었다.
그 가운데 구멍을 내고 물을 부은 다음 사발을 덮고 대 위에 올려놓았더니,
흰하여 마치 은으로 만든 병 같았다.
구멍을 통하여 촛불을 넣고 불을 밝혔다.
불그스름 밝은 기운이 빛을 띠어 통과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이들은 경기감영에 있던 서지에서 연꽃을 구경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이때 이윤영은 손으로 막 피려는 연꽃을 꺾어다 연잎이 있는 물에다 띄우고, 벼를 불려 유리 술잔을 꽃 가운데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상이 술잔 가운데 촛불을 붙였습니다.

불빛이 유리 술잔을 비추고, 술잔이 꽃을 비추었습니다. 꽃 빛과 물 빛이 다시 잎을 비추었습니다. 바깥은 푸르고 안은 은빛이며 밝고 환하였습니다. 술을 마셔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마셔야 합니다. 벽통음은 연대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코끼리 코처럼 연잎에 붙은 연대궁을 굽히고 연대궁으로 통하는 곳을 뚫어 그 곳에 술을 부어서 마시는 것을 이릅니다. 예전 문인들은 술을 마시고 더위를 피했는데 가장 운치 있는 방식이 바로 벽통음이었습니다.

‘음주이피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더위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술을 마시는 것은 운치가 없습니다. 연꽃이 붉게 피어나고 연잎이 파랗게 못을 덮고 있는 것을 보면, 연잎의 대궁에 구멍을 뚫어 한두 잔 술을 마시면서 더위를 피하는 운치는 재현해보고 싶습니다. 이렇듯 꽃을 키우고 이를 즐기는 운치가 대단하였습니다. 꽃을 구경하는데 운치를 더하려면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꽃 구경은 피서를 겸한 술자리입니다. 두 번째 글에서 보이는 매화 감상은 한겨울, 음력설 전후 시기의 운치 있는 술자리입니다. 그 공간은 계산동에 있던 오찬의 집입니다. 이 시기 청동기 유물과 같은 골동품에 다자명종과 같은 신문물을 서재에 나란히 두는 일이 지식인의 우아한 일로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고결한 매화를 더하되, 얼음 속에 촛불을 넣어 그 조명으로 매화를 감상하는 이른바 빙등연을 가졌습니다. 빙등은 얼음 등불을 밝힌 연회라는 뜻입니다. 그냥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을 들이면 더욱 운치가 높아집니다. 노는 데도 공을 들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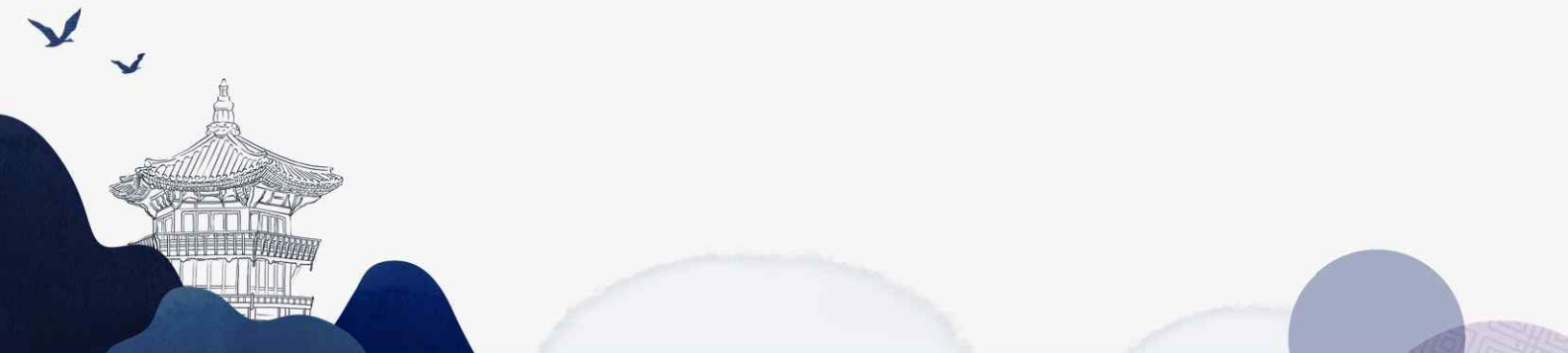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이상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강희안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편찬한 양화소록이 어떤 책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양화소록의 중요한 대목을 직접 읽으면서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1

Understanding of Yanghwasorok

1-1

Introduction

Hello, students.

I'm Lee Jongmook, one of the lecturers in this course titled <Revisiting Korean Classics>, and I'm going to give you a lecture about Yanghwasorok, a classic on Korean gardening and bonsai. The theme of this first lecture will be 'understanding Gang Huian's Yanghwasorok.'

The picture on the screen is a villa called Okhojeong in Samcheong-dong at the foot of Baegaksan (Mt. Baegak). Surrounded by small mountains and streams, this huge and beautiful house was owned by Kim Jo-sun, a writer in the reign of Sunjo. Since he opened the in-law politics of the 19th century, it is not surprising that he had a villa like this.

This painting is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you can look it up on the Internet. Unfortunately, we don't know who painted it. But we can estimate that it's from the mid-19th century. Now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is painting.

There is a large rock on the peak at the top, which has 'Ilgwanseok' written on it, and the letters are actually engraved there. What does it mean? It means the stone to watch the sunrise. As you can guess from the well-known sijo, "Mount Tai is high, but it is still under the sky," they thought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was Mt. Tai. The name of Mt. Tai's highest peak is 'Ilgwanbong (Sun-Viewing Peak).' So, Baegaksan becomes Taishan and Sun-Viewing Stone is Sun-Viewing Peak. Okhojeong becomes a miniature of Taishan.

And in the middle, there is a huge rock engraved with four letters, 'Ok-ho-dong-cheon (玉壺洞天),' Okho means a jar of ice, symbolizing a noble character. As dongcheon means valley, the word means Okho Valley. It refers to the entire valley where Okhojeong is located.



You can also see the writing on the left side, and it says 'Eulhaebyeok.' That means that it was engraved by its owner, Kim Jo-sun, in 1815, the year of eulhae. And there's a poem written next to it. It says, "San-gwang yeosugo seokgi gajangnyeon," which means, "The color of the mountain seems ancient, but the energy of the rock will last a long time." This poem can be found in Kim Jo-sun's anthology, written in a pavilion called 'Biraejeong.' Birae means that an immortal is about to fly. He must have felt as if he were an immortal when he sat in Biraejeong. Biraejeong is the thatched pavilion under Eulhaebyeok. Again, on the right side, we see the words 'Hyesaengcheon.' There is a spring with tasty water in Hyesan, China. This stream is also called Hyesaengcheon because it tastes good, and it means that a gracious spring water comes out.

Okhojeong has several pavilions besides full-fledged buildings such as anchae (the main building, women's section) and sarangchae (men's section). The thatched house on the right side of Hyesaengcheon is Sanbanru, located at half point up the mountain. Below that, you can also see Jukjeong, bamboo pillars. And the pavilion on the left with a tiled roof is Cheobunjeong, which means a pavilion deep in the mountain covered with layers of clouds.

This painting is significant because it most specifically shows the garden of writers in the Joseon Dynasty. Let me zoom in on this painting.

At the entrance to the yard, a locust tree called 'goemok' and a pine tree with 'song' written on it stand like a door. The word 'chwi' in front stands for chwibyeong, which means blue folding screen. It's a folding screen of trees so that you can't see inside from the outside. Below Biraejeong, you can also see a pine tree with 'bansong' written on it. And on top of it, it says 'danpung-dae,' indicating that the tree here is a maple tree. Below that is a grapevine on a trellis, marked 'podoga,' which means grape trellis.

And there are several pots in the passage inside the door. A pine tree and oddly shaped stones are on them. In the pond, there are lotuses. Next to them, peonies, azaleas, and plantains are planted in the ground. There is also a terraced flower bed in the upper right, where peonies are planted. The terraced flower bed can also be found in Namsan Hanok Village, under the wall.



The dream garden that writers of the Joseon Dynasty would have been no different. The reason why I introduced this painting in detail is that it best shows the garden of the Joseon Dynasty. This garden full of flower trees would have been similar to the ones in the house of any literary man with a tast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house of the Silhak scholar Dasan Jeong Yak-yong was located in Myeongryebang, today's Myeong-dong. It was a place where people kept coming and going, at that time as well. The sound of carts and horses was also loud. However, the house needed to be bigger to dig a pond or grow a proper garden. So Jeong Yak-yong set aside about half of the yard, got flower trees and fruit trees, and planted them in pots to fill it.

There were four pomegranates of a variety called anseokryu, with beautiful flowers and fruits, from Japan, two pomegranates of another variety called neungjangryu, with branches spreading sideways like an umbrella pine, and a flower pomegranate that does not bear fruit. His garden also had two plum blossoms that Joseon scholars loved the most. In addition, two gardenias, a camellia, a Chinese parasol, a juniper, and a magnolia were arranged in pots.

Four pots had gold and silver daffodils each, and a pot had both, which they called gold and silver cups. In particular, there were 18 chrysanthemums of different varieties. And he built the flowerbed railing with bamboo. There were a huge variety of flowers and trees in pots.

The theme of this lecture on Yanghwasorok is flowers and trees that decorate the garden, as you can see in this painting. This painting is the house of a writer from the 1800s. In particular, almost all of the flowers and trees in the pots in Jeong Yak-yong's garden have been covered in Yanghwasorok, which will be explored in this lecture.





Unfortunately, there was no painting that shows the garde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hen Yanghwasorok was compiled, so I had to show you the picture of the Okhojeong Pavilion. In the Joseon Dynasty, writers' houses were not shabby but splendid like this, decorated with flowers and trees of a much more diverse variety than we thought. And I'd like to tell you that, for this, they had considerable gardening skills.

Now, focusing on Yanghwasorok, this lecture will examine how Joseon writers grew flowers and trees in pots more than 400 years ago. In the next session, we will look at Yanghwasorok, the classic horticulture guidebook and its author, Gang Huian.





1-2

Yanghwasorok, the Classic Horticulture Guidebook and Gang Huian

Hello, students. This session will look at the classic horticulture guidebook Yanghwasorok and Gang Huian.

Joseon's writers had an unusual love for flowers. Some people named their houses Hwaam or Baekhwaheon for their love of flowers. Hwaam is the name of the house of a man called Yu Bak, who was crazy about flowers in the 18th century and left a book about flower trees titled Hwaam Surok (The Record of Trees in Hwaam). Baekhwaheon is the pen name of Yi Jo-nyeon, a literary scholar of the late Goryeo Dynasty. Hwaam is the house of flowers and Baekhwaheon is the house with 100 flowers.

That's not all.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writers named their houses after their favorite flowers or trees, such as plum blossoms, lotus flowers, chrysanthemums, and bamboo, or after literary works based on such flowers and trees. Of course, China and Japan were no different. Jeong Gu, a scholar in the mid-Joseon Dynasty, planted 100 plum blossoms in his garden and named it Baekmaewon (Garden of a Hundred Plum Blossoms), and Jo Hee-ryong, a painter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called his house Maehwa Seo-ok (A Cottage with Plum Blossoms). His painting of Maehwa Seo-ok is big and colorful, and it is loved by many people even now, as it was at that time.

In addition to this, they enjoyed the personification of flowers together. Plum blossoms were called cheonggaek, clear visitors, orchids yugaek, a fragrant hermit, and chrysanthemums sugaek, a long-lived guest. Chrysanthemums were also called gawu, beautiful friends, lotus flowers were called jeongwu, clean friends, and plum blossoms cheongwu, clear friends. Furthermore, Toegye Yi Hwang called plum blossoms 'mae-hyeong,' like a brother, and exchanged poems with them. On the day of his death, he said he didn't want to show his brother his impure body and made a will to move it.





As they loved flowers and trees like this, practical books naturally appeared for growing them. In China, professional floriculture books such as Qunfangpu (Geneology of Various Flowers) appeared in the 16th century, but before that, practical books for growing various flowers such as chrysanthemums, plum blossoms, bamboo, and peonies appeared during the Song and Yuan Dynasties. Such books include Jupu for chrysanthemums, Meipu for plum blossoms, Zhupu for bamboo, and Shaoyaopu for peonies. However, they are all books dealing with only a single variety.

There was a practical book on flowers in Korea, as good as these writings, and it is the horticultural book Yanghwasorok, compiled by Gang Huian around 1449. Yanghwasorok was the first comprehensive horticultural book in East Asia in that it deals with 16 species of flowering trees. And this book had a profound influence on other writings on flower trees later on in Joseon. Among the writings on floricultur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is one of the first in the list of references.

I'll show you other books like this later.

Gang Huian (1418-1465), who compiled Yanghwasorok, was called Gyeongwu as a nickname, and Injae as a pen name. His family is from Jinju, a prestigious family that produced many renowned officials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His grandfather, Gang Hoebaek, was a writer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served as a Chancellery scholar of the second senior rank. There is a plum tree with 600 years of history in Dansoksa temple in Jinju, called Jeongdangmae (Chancellor's Plum). It was Gang Hoebaek who is believed to have planted it. And Gang Huian's father, Gang Seokdeok, married Sim On's daughter, and King Sejong also married Sim On's other daughter. So, King Sejong was Gang Seokdeok's brother-in-law. And Gang Huian was Sejong's nephew.





His younger brother Gang Huimaeng is the author of Geumyang Japrok (Miscellaneous Matters of Geumyang), which is important for the study of agricultural histor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e also compiled Jinsan Sego, which is a collection of poems by his grandfather Gang Hoebaek, his father Gang Seokdeok, and his brother Gang Huian, which is called Sego because it is 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from three generations. Sego, a collection of three generations' literary works, was compiled by Gang Huimaeng for the first time in East Asia.

It was published in woodblock print in 1474, and is now designated as a treasure. Volume 4 of this collection is Yanghwasorok, considered the most original. Volume 3 is Injae Sigo, a collection of Gang Huian's writings. There are 66 poems, some of which are about his paintings, and others are about his own flowering trees.

Gang Huian worked mainly at Kyujanggak in his youth and conducted many important studies. He was excellent at learning,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so he was called samjeol, meaning triple-talented. Seo Geojeong, the best literary scholar of the time, wrote the epilogue of Gang Huian's literary collection, Injae Sigo, and here he notices that Gang Huian established his own style in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He compares Gang Huian's poems to the works of Wang Wei and Wei Yingwu, excellent poets during the Tang Dynasty. Both of them are characterized by a clear sense of beauty in their songs about life in the mountains, so we can conclude that Gang Huian's poems were the same. If you read his poems, you'll see they are not that difficult and feel refreshed.

As for calligraphy, his writings are compared to those of Wang Xizhi of Qin and Zhao Mengfu of Yuan. Wang Xizhi is the best calligrapher ever in history and is called Seoseong, meaning a saint of calligraphy. If you think of Du Fu, who is called Siseong, you can guess how great his calligraphy was. And Zhao Mengfu is considered the best calligrapher since Wang Xizhi, and his writing was called Zhao Mengfu style, and profoundly influenced i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Of course, Gang Huian's handwriting was influenced by them, but Seo Geojeong says he mastered a delicate way on his own beyond simple imitation. The jade seal sent from the Ming Dynasty was engraved with 'Checheonmokmin Yeongchanghusa,' which means, "rule the people after heaven and prosper for future generations forever," and it is said that it was his handwriting. But unfortunately, this seal is gone.

Nevertheless, the fact that he wrote on the seal itself can give you a sense of how excellent his handwriting was. Also, Eulhaeja, the metal type cast in 1455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is believed to be made using Gang Huian's handwriting, because he was the best at that time. Eulhaeja is the representative metal type of Joseon along with Gabinja, and you can also appreciate his calligraphy in the book printed with Eulhaeja.

His painting is said to have reached the level of Guo Xi and Liu Daoquan of Song, both considered the best painters of the time. Guo Xi and Liu Daoquan were masters of landscape painting, and are known to have greatly influenced the painting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According to Gang Huian's anthology, he painted Yeoindo, which depicts a beautiful woman, and Gyeongundo, which depicts the plowing fields and rice paddies. And the scrolls depicting Cheonghak-dong in Mt. Jiri and the Cheongcheon River in Pyeongan-do were considered treasures in the world. The painting that has been passed on today is Gosagwansudo, which is a portrait of a scholar looking at the water.

You can see this picture, searching for Gang Huian's Gosagwansudo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You can also see a collaborated painting by Gang Huian and Sin Bu-in, where an oddly shaped stone from Yanghwasorok is drawn in the middle. I'll talk about the stone again later.

And there are several pots on the bottom right, one of which contains nosong, which I'll discuss later. On the left is the black bamboo, which is called ojuk. It also appears in Yanghwasorok. I think the painting became more lively because Gang Huian enjoyed growing flowers and trees and liked oddly shaped stones. Gang Huian was this kind of person.





Gang Huian was a true flower lover. He liked to read and grow flowers every day. He spent his time growing flowers except when he went to work or looked into his parents. Taking care of flowers in the morning and evening, he naturally learned how to bloom them. He also referred to old ways, but if there were none, he would ask around and learn from his own experience.

The name of Gang Huian's house under Namsan was Saujeong. The word saujeong was popular during the Joseon Dynasty. However, as you can see in Yun Seondo's Ouga, it seems that you should use the letter 'u(友)' meaning friend instead of 'u(雨)' meaning rain, but there's a reason not to do so.

Burimgun Yi Sik, the grandson of King Sejong, 50 years younger than Gang Huian, also had a pavilion with the same name Saujeong, and here sau means four friends. The letter '友' and '雨' were changed because they have the same sound, and Du Fu once played this prank.

Gang Huian did not reveal why he named the house Saujeong, but he probably meant the same way.

Four friends of Burimgun Yi Sik were plum, apricot, peach, and pear trees, all of which have beautiful flowers, but I don't know what kind of plants Gang Huian considered as friends. Gang Huian's Saujeong also had various flowers and trees, including pines, bamboo, chrysanthemums, plums, orchids, daphne, camellias, pomegranates, tangerines, and flags. Among them, the four friends were likely pines, bamboo, chrysanthemums, and plum blossoms.

Daphne was a much loved flowering plant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and although they are still found in Korea, they are not very common today. White, yellow, or purple flowers bloom in the middle of winter, which have very fragrant scent. I also saw it in an illustrated plant book. I think you've heard of the rest.





But what's unique is pomegranates, camellias, or tangerines. His tangerines were said to have fruits. It is still difficult to raise them in Seoul now, but at that time, it was grown in a flowerpot in a greenhouse. That means his cultivation techniques were excellent.

Like this, Gang Huian owned many flowers. When his friend sent him orchids and bamboo pots, he returned his tangerine tree with his own poem to show gratitude. As the number of precious flowers increased, the friends came to see them, and even when he was alone, he enjoyed looking at them. It is said that when the plum blossoms bloomed, he wrote a poem while pouring alcohol alone under the plum tree, and when he planted bamboo, he contained his excitement in another poem.

In his poem, he said, "Recently, I learned how to grow various flowers, so I planted them on the ground and in pots and put them in good places." You can see that his art of growing flowers reached a considerable level. He had enough learning and experience to compile Yanghwasorok. Yanghwasorok is a book compiled based on these experiences. Yanghwasorok contains forewords of Gang Huimaeng and Gang Huian at the beginning. Gang Huimaeng says that his older brother Gang Huian had excellent ability, but he did not try to get ahead of others and did not intend to be promoted through personal connections. People felt sorry about his not playing a bigger role in the world, but he was happy to grow flowers. And because he didn't contribute much to the world, he presented his subtle intention by compiling Yanghwasorok. So this book goes beyond simple horticulture and shows humanistic insights. I'll talk about this again later.

In August 1449, Gang Huian was appointed as bujidonnyeong, in charge of managing royal figures, except for royal families. Since it was a job with scarce work, he made it a job to grow flowers, refusing to do all other things in his leisure time when he finished morning meetings or asking after his parents in the mornings and evenings. He says he had many flowers because his friends brought them to him whenever they got some unusual flowers.

He also says that flowers that can be planted in the ground, like tree peonies and peonies, need different ways to grow from those planted in pots, and they are already detailed in Chinese literature, so he didn't cover them separately.



He subsequently describes nosong, mannyeonsong, obanjuk, chrysanthemums, plum blossoms, nanhye, daphnes, lotus, pomegranates, gardenias, sagyehwa, sandahwa, jamihoa, Japanese azaleas, tangerines, and sweet flags. Oddly shaped stones follow these 16 kinds of plants; thus, he describes 17 items of flowers, trees, and the stone that decorate gardens. They are all plants that grow in pots with stones, as he admits himself.

Here, nosong is a small pine tree grown in a pot. Nosong (old pine tree) would most likely remind you of a tall and exuberant pine tree, but it is actually a small pine tree, only a few tens of centimeters long, as can be seen in a botanical garden nowadays. It is the Japanese cypress planted in a pot in Gang Huian's painting earlier. Mannyeonsong (ten thousand-year-old pine) sounds huge because it's grown for ten thousand years, but it's not. It refers to the Chinese juniper that grows low and crooked in the alpine region. It is also called a lying juniper, and the one in the painting was dug up and grown in a pot.

Obanjuk is also called Ojuk, and it is a bamboo with a black stem. Nanhye is an orchid and hyecho, and hyecho is a kind of orchid with slightly larger leaves and less fragrance. By the way, what we can usually see these days is not a proper orchid, but a nanhwa. The real orchid described in Qu Yuan's writing was extremely rare in Joseon, and many records show they purchased fake ones from China. Real orchids smell not only from flowers but also from stems and leaves.

I mentioned daphne earlier. Sagyehwa, also known as Wolgyehwa (Chinese rose), bloom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regardless of the season and looks almost like a rose. Sandahwa is the camellia, and jamihoa refers to the crape myrtle. Sweet flags grow by the streams or between humid rocks, and their scent is fragrant like an orchid and the leaves are thin. The flowers are yellowish blue. It is unnecessary to explain the rest because they are easy to see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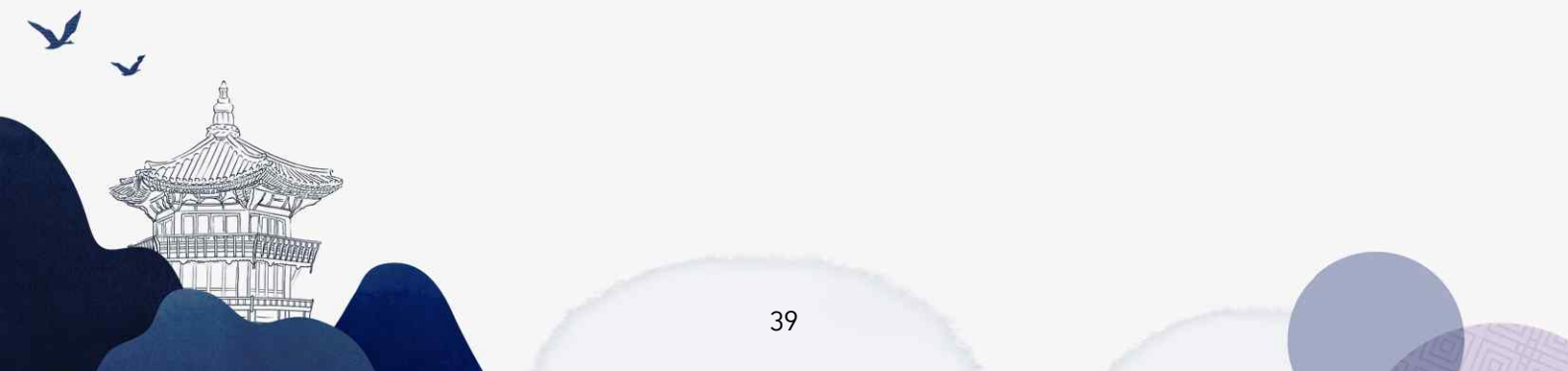
After the descriptions of these 17 items, Yanghwasorok added content at the end, about how to grow flowers and trees in pots, how to make flowers bloom quickly, what flowers hate, what to take when growing flowers, how to protect flowers, how to arrange pots, how to store seeds or roots, and what it means to grow flowers. He quotes some from Chinese literature and adds the skills he learned. He wrote down how to give excrement, how to plant a cutting, and how to graft.

Sometimes the information from Chinese literature does not fit Joseon, so he suggests alternative methods.

For example, he says that if horse droppings are soaked in water and sprinkled, flowers bloom right after three or four days, but there's also a record that if horse droppings are sprayed on some trees, they die. He also says that flowers hate devoted sons and pregnant women, so if they break a branch with their hands, the tree will not have flowers for years, which is hard to believe. These are all quoted from Chinese literature. We will talk about the arrangement of flower pots and the meaning of growing flower trees later.

As such, Yanghwasorok is a book about how to grow various flower trees in pots at that time. Even now, the flower trees mentioned here are difficult to grow in Seoul. I wonder if anyone succeeded in growing camellias or tangerine trees in pots in Seoul. Have you ever seen a crape myrtle growing in a pot? I would say that Gang Huian's skill in growing flower trees was amazing.

In this session, we've looked at Yanghwasorok and Gang Huian. In the next session, we'll look at how Yanghwasorok is written.





1-3 Structure of Yanghwasorok

Hello, students. In the last class, we looked at the classic of horticulture, Yanghwasorok and Gang Huian. In this class, let's take a look at how Yanghwasorok is organized.

Yanghwasorok basically has general facts about flower trees, such as their names or related literary works, and then presents the most practical knowledge of how to grow, what pot to use, and how to set them in a greenhouse. And at the end, it sometimes adds an essay that shows humanistic insight. Integrated thinking without separating natural sciences from humanities is a characteristic of old scholars, and it sh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this spirit of integration in future studies.

Now, let's take a look at the system of Yanghwasorok in detail, with the lotus as an example.

The picture you see is Yanghwasorok from Jinsan Sego, printed in woodblock, which I introduced earlier. It's in Sungkyunkwan University's collection, and you should notice that it is marked to prevent illegal copying, but the content is the same as the one designated as a treasure. You can find this book right away if you search the website of Sungkyunkwan University library.

This page introduces yeonhwa, the lotus flower. First, it cites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flower tree in Chinese literature. Here, it quotes an ancient Chinese text called Er-ya. It introduces the names of each part of the lotus flower. The stem is called ga, the leaf is ha, the flower is hamdam, the fruit is yeon, the root is woo, and the seed is jeok. If you look up Er-ya, the second Chinese characters are right for the stem and the leaf.

Then, there appears "On the Love of the Lotus" by Zhou Lianxi. It also presents the record that a person named Zeng Duanbo in Song called the lotus jeongwu, a clean friend. If you go to Dosanseowon Confucian Academy, there is a pond called Jeongwudang, which means a pond with lotus, a clean friend. Jeongwu is the nickname for lotus flowers.



Zhou Lianxi's "On the Love of the Lotus" is famous for its well written sentences. I'll read it out loud.

I love lotus flowers alone. It grows in mud, but it doesn't get stained, It bathes clean in clear water and is not sensuous, The center is empty and the outside is straight, It doesn't stretch out vines nor does it spread out branches, The farther the scent spreads, the clearer it becomes Straight, clear, and growing You can look at it from a distance, but you can't enjoy it close. The lotus flower is the noblest of flowers.

Zhou Lianxi's "On the Love of the Lotus" is very well known. Lotus grows in dirty mud, keeps clean and not too voluptuous. The center is empty, but the outside is straight and doesn't spread out branches or vines sideways. The scent spreads far away, but it's never alluring but just calming. Therefore, although the mind is always empty, it does not lose its upright will because it is not indecisive, and it contains the meaning of an iron hand in a velvet glove. That's why the lotus flower is the flower of gunja, the noble prince.

This article had a great influenc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re are many pavilions named Gunjajeong near the pond, which is from this article. Of course, Gunjajeong should have a pond with lotus flowers, the flower of gunja, next to it. Along with jeongwu, there were quite a few studies and pavilions named uryeon in the sense of making friends with this spirit of lotus. Also, Confucian academies were named Gyeongryeomseowon, to show reverence to Zhou Lianxi. Gyeongryeomseowon Confucian Academy was located in Seongdae-dong, Gimcheon-si, Gyeongsangbuk-do, and was created in honor of Kim Jong-jik, a great teacher of Sarim, who built a village school called Gyeongryeomdang.

During the Joseon Dynasty, writers loved this writing so much that they named their pavilions near the pond after each phrase. There were many pavilions called Takcheongjeong, Wonhyangjeong, Cheongwonjeong, Cheonghyangjeong, and Ikcheongjeong. Let's see what letters from the original "On the Love of the Lotus" were taken.



Some of them were taken as their original forms, such as takcheong, hyangwon, and ikcheong, and others were taken and changed the order of letters, such as cheongwon, wonhyang, and cheonghyang. A person also gave his pavillion an interesting name, Jeongjeongjeong, from the phrase jeongjeong. Seo Geo-jeong had a pavilion with this name and took it as his pen name. There was also a person who named his pavilion 'Dongyeo,' taking it from "Who loves lotus flowers and shares my mind?" in the latter part of "On the Love of the Lotus."

As we saw in the previous picture, the book covered how to grow lotus flowers, following the writings of Zeng Duanbo and "On the Love of the Lotus." First, it introduces the way to jongryeon, that is, to plant a lotus tuber. It is to grind the head of the tuber to make it thin, cover it with mud, and put it in a pond when it dries. While finding and taking a significant part of the most useful method in Chinese books during the Song and Yuan Dynasties, the author revised the content based on the cultivation method in Joseon. In this respect, Yanghwasorok was written by Gang Huian as an individual, but at the same time, it is a compilation of Joseon's horticultural studies in the 15th century.

Gang Huian then writes what the lotus minded, saying that if you sprinkle paulownia oil on the pond, all the lotus will die. And he introduces how to plant lotus in a pot. This is especially remarkable. It is said that if you plant red and white lotus flowers together in one pond, one of them will wither. I am a humanities major, and I am not sure if Gang Huian is right because I have not grown lotus myself. If you're interested, try it yourself.

In addition, he urges us to bury a large pottery in the ground and plant white and red lotus flowers, respectively, because digging a pond in a small house in the capital city is difficult. And he says that if you plant water plants next to the pottery, such as wild rice, cattails, duckweeds, and pondweeds together, and put five or six small fish in it, it will look like a real pond. This is called bunyeon, a lotus flower in a pot.



In 1692, Jo Deok-rin, working in Seungjeongwon (Royal Secretariat), planted lotus flowers in a pot, as described in Yanghwasorok. Jo Deok-rin was born in Hanyang, an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he resigned due to illness and stepped down to the upper stream of the Nakdonggang River to train younger students. This was what happened when he was in Seungjeongwon as a seungji (royal secretary).

He piled up stones in an empty lot of Seungjeongwon's yard to make a platform, laid white sand and grass, and put two flower pots filled with water and mud, and planted lotus. And he said that the heat was severe and his eyes hurt recording the royal commands, but the green leaves and blue poles shook in the wind and the scent of lotus permeated his clothes, relieving his fatigue.

He also said that when it showered, he enjoyed watching the lotus leaves at a higher place holding raindrops round like jade beads and losing them. When you go to a restaurant in the suburbs, you can easily see water lilies floating on a red plastic basin. If you put a little more effort into it, it will be a nice small pond like the one that Gang Huian or Jo Deok-rin made.

The method of growing lotus flowers developed furth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Seo Yu-gu quoted Yanghwasorok as he explained the method to cultivate lotus, and said that if you apply paper soaked with green bamboo tea on a stamen before the flowers bloom, and wrap the stamen with the paper, the flower will become blue.

Seo Yu-gu, a Silhak scholar who was active in King Jeongjo and Sunjo's reign, is famous in academic history and wrote a great book called Imwongyeongjeji (Essays on Rural Life and Economy). Part of this book, 'Yewonji,' deals with the names and cultivation methods of flower trees, and it succeeded the achievements of Yanghwasorok.





Yanghwasorok introduces how to plant camellia seeds like lotus. Planting a cutting can be applied to Camellia trees, and its method for various varieties such as daphne was written in detail. Grafting is also explained for other trees like a plum tree, and the method is extremely sophisticated. I'll talk about grafting plum blossoms later, but here, I'll just briefly introduce the method of branch grafting.

This method can be applied to daphnes. You cut the branches, put them sparsely in a pot, and put them in a shade to survive, and when they do, you can cut the low branches slightly, bend them, and bury them in the ground. This method was also common in Gang Huian's time, but I don't know what they do these days.

After introducing all the cultivation methods, Gang Huian presents an essay showing humanistic insight. In this respect, Yanghwasorok is not just a horticultural book, but a humanities book. The essay on the meaning of planting lotus flowers begins in the second line. Let me read it aloud to appreciate its noble spirit.

What did a man achieve if he was born into the world and worked hard for fame and fortune and couldn't quit until he died of old age? Even if you can't take off your official uniform, dust it off and go away to spend time rambling in the mountains, but when you're free from official duties, when there is a clear wind, with bright moonlight, and the overflowing scent of lotus flowers, by the time the shadows of wild rice and cattails shimmer and the little fish flutter among the water plants, you can walk with your collar wide open, recite a poem, and wander around. Although the bond of honor binds the body, it would be sufficient for the mind to play beyond the world and release your thoughts and feelings. There's an old saying that goes, "If you are busy swinging the reins in the royal court and market, you will feel frustrated, but if you walk leisurely in the woods and fields, you will have an empty 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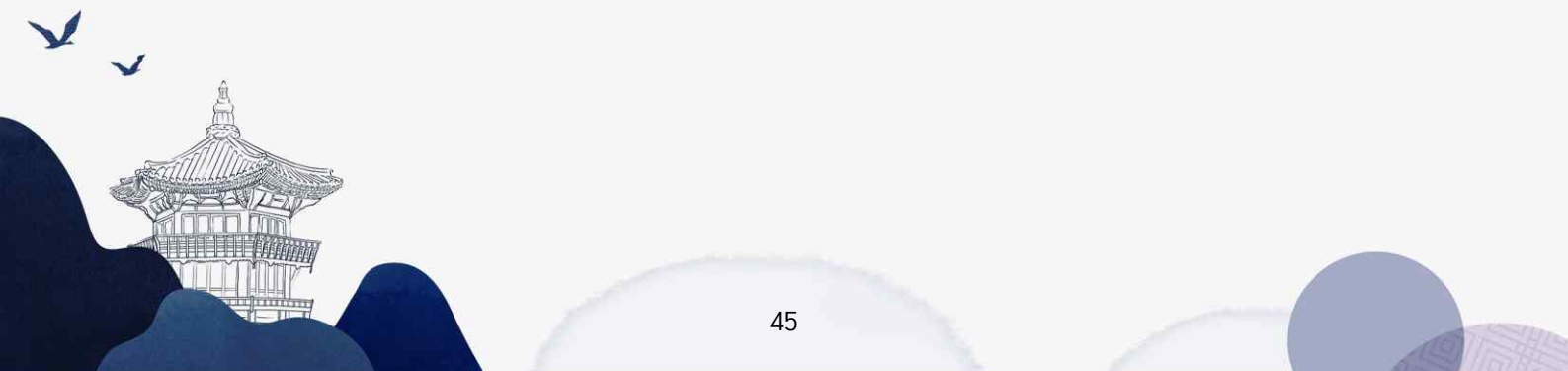
People of all ages have never enjoyed a comfortable day for wealth and power. The intention to plant lotus flowers and look at them is to get out of this even for a while. Although it may be hot in summer, if you go to the pond to see lotus flowers in the evenings when the cool wind blows and the moon rises brightly, and if you take a walk while looking at the fish playing in the water and the water grass swaying in the wind, though your body is in the city, your mind is in nature.

This article quotes an old saying, "If you are busy swinging the reins in the royal court and market, you will feel frustrated, but if you walk leisurely in the woods and fields, you will have an empty mind." This sentence can be found in the foreword of Wang Xizhi's Lantingji Xu (Preface to the Poems Collected from the Orchid Pavillion).

Wang Xizhi is famous for setting an example in the calligraphy of writers of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Gang Huian. In 353, he met with other celebrities at Shanyin of Kuaiji, and Lantingji is a collection of poems written at this time. He put a preface to this in his wonderful handwriting.

A scrapbook was modeled after his preface by later generations, and became a textbook for calligraphers. Perhaps Gang Huian changed this word of Wang Xizhi, and thought, if you know how to love flower trees, even if you go around the royal court and markets, not forests and fields, you can relieve your frustration and cool your mind.

Beyond the botanical information of cultivating lotus flowers, insightful writings like this are added to further enhance the value of Yanghwasorok. So far, we've looked at the contents of Yanghwasorok. Next time, we will consider the implication of Yanghwasorok.





1-4 Implication of Writing Yanghwa-Sorok

Hello, students. In the last session, we looked at the contents of Yanghwasorok. In this session, we will explore the implication of writing Yanghwasorok.

Earlier, I read an essay on lotus flowers full of humanistic insight. Yanghwasorok adds essays like this to each flower, and the essay added at the end, "The Meaning of Growing Flowers," as an epigraph, comprehensively explains the implications of a scholar growing flowers and trees. Here's the outline.

One evening, Gang Huian was squatting in the yard to raise the soil and plant a tree, when a guest came and asked why he had trouble doing this. He was criticizing that Gang Huian was disturbing the mind to please the eyes. The ancients called it 'wanmulsangji.' It's a word that scholars in East Asia are wary of. It means that hobbies such as go, fishing,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nd growing flowers are harmful to the mind of a decent scholar.

Jeongam Jo Gwangjo, who advocated political reform as a symbol of Sarim, once criticized that people who like to ride horses, grow plants, keep geese and ducks, will eventually not be able to reach the truth because his mind is focused on and becomes obsessed with the outer world, and referred to this as so-called wanmulsangji (focusing on favorite and losing mind). The term bakhaksoin (wide knowledge but small mind) comes from the same context. It means that knowing a lot doesn't make you wise. Some people believed that having a lot of knowledge about growing flower trees would hinder the cultivation of the virtues of the wise 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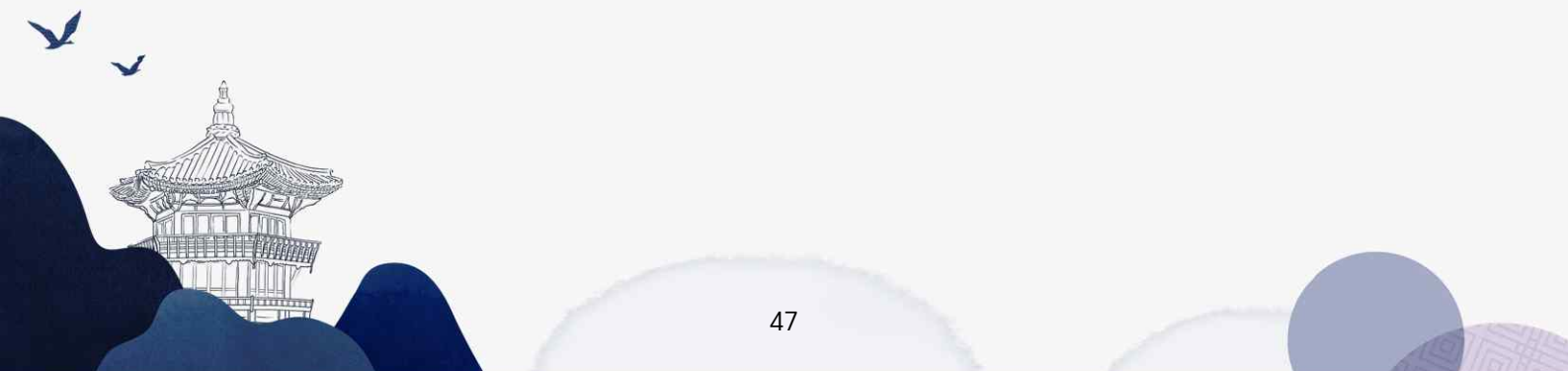


This is how Gang Huian replies to this. If you really put forward your morality like that, wouldn't your body dry like a dead tree and your mind become messy like mugwort stalks? And he said that growing a flower tree is also a study. According to him, there are many things in the world, each of which contains its own logic, and you can only gain true knowledge by exploring them completely. And you can only get the right perception of things by doing so. Otherwise, you might become a person who is controlled by everything in the world.

And he advocated the phrase, 'gwanmulseongsin, jijiuiseong.' It means that if you look at things and reflect on yourself, you can get extreme knowledge and a sincere mind. It's a very good word. This is what it means to grow a flower tree. This is the meaning of 'gyeokmulchiji' and 'gwanmulchali,' which were commonly used by scholars during the Joseon Dynasty. Gyeokmulchiji means that we derive knowledge by confronting things, and gwanmulchali means to observe things and examine the truth, so they are still a proper way to study.

Next, Gang Huian introduces the meaning of growing pine trees. Changgwan is a nickname for pine trees, meaning an official with a blue hat. People plant pine trees to learn constancy that doesn't wither even in winter. This is the phrase from the Analects, written in Sehandong (Winter Scene) by Chusa Kim Jeong-hui, meaning that the year must end to see that pines and nut pines wither later.

The first chapter of Yanghwasorok is about nosong, the robust Japanese cypress. Earlier, I said that Yanghwasorok has an essay after each plant and its cultivation method, and this essay is included in the pine tree section. I'll read it aloud.





A husband of a princess got a pot with a grotesque cypress. One day, in order to flatter and be favored, a servant went to the old pine pot, took out a knife, cut the old branches, and peeled off the wrinkled bark. The king's son-in-law asked in surprise. "Why did you do that?" The servant said with a flattering smile. "To grow a new one by removing the old one." The king's son-in-law said with a smile. "What you did is just like they say, 'Cut a square bamboo stick to round it, wash an antique copper vase to whiten it.'¹⁰ I see that as soon as the young subjects rise to the ranks of the Chancellor, they are all rashly trying to reform the old laws, saying, 'The old law has many negative effects, so keeping it is not as good as using a new law. Why do we have to stick to the old ones?' And they modified the law in the morning and revised it again in the evening, and almost nothing of the old law remained, making the state in a difficult situation. How can it be any different from my servant cutting off the old one!"

What do you think? Jeguyangsin, which means removing the old and growing the new, rather leads to evil.

The letter 'je' means to remove, 'gu' means old, 'yang' means to grow, and 'sin' means new. It is an admonition warning on hasty and inept reform. In this article, the phrase sagwonjukjang, which means to cut a square bamboo stick to round it, came from an interesting episode.

During the Tang Dynasty, a writer named Li Deyu, who visited Gamnosa Temple in Yunju, gave a unique bamboo cane with square angles to a monk there as a present. This cane was made in Persia and was a rare square stick with a beard and tooth pattern on each joint.

However, the monk, who did not know the value of it, cut it round and painted it black. So the verse goes, "Cut a square bamboo stick round, and paint a broken patterned geomungo black." An old geomungo gets cracks in various patterns, which is considered very rare. Lackering and painting it black would be an act of sheer folly.



Also, the phrase, 'wash an antique copper vase to whiten it' describes the foolishness of washing and whitening a copper vase that looks cool only when it is rusted blue. People in the past called this inelegance. This is the lesson that Gang Huian learned from looking at the pine trees.

As we saw earlier, we can learn about the wise man's heart from lotus flowers, which are not stained in dirty environment. Chrysanthemums beat frost and bloom only after other flowers fall. You can learn the mind of refusing to compete with other flowers, and the mind of overcoming frost-like trials.

Earlier, I read Zhou Dunyi's "On the Love of the Lotus," written in the Song Dynasty, and the first part of it starts like this. "The chrysanthemum is the hermit of flowers, the peony is the wealthy man of flowers, and the lotus is the wise man of flowers... Alas, I've rarely heard of someone who loves chrysanthemums since Tao Yuanming." Tao Yuanming was a hermit who loved chrysanthemums, so chrysanthemums became a symbol of seclusion in particular.

So Gang Huian concludes that you should see it with your eyes and learn it with your mind. He demands that we see the lotus flower with our eyes, but learn its virtue with our minds. And he notices that taking the look of plants as your virtue will give you many benefits as well as a magnanimous heart.

He says, "Those who enjoy themselves in a grand house with expensive rugs, with women with jade beads, music with gisaeng singing, try to entertain their hearts and eyes, but in the end, it only blows down and hurts the mind and germinates the proud and stingy heart, so, compared to that, isn't it better to grow flowers?"





Even after Gang Huian, the implication of growing flower trees was no different. There is a person named Hong Yuson, a scholar of the mid-Joseon period who enjoyed longevity. Although he was born to a seori, a lower rank official, he had a great goal and studied under Kim Jongjik, the head of Sarim, and earned his reputation as a scholar. He is said to have married at 76 and had a son and lived to be 99 years old, but he actually died at 78. It seems that a younger student got sick while overdoing himself to get ahead early, and confessed his concerns to Hong Yuson, who was well versed in medicine.

In response, Hong Yuson said that the mind is more important than medicine, and then told him about chrysanthemums that his young colleague liked. He said, "The chrysanthemum overcomes the frost and cold wind and blooms in late autumn, standing alone over all kinds of flowers because it is not fast." It made us realize that late blooming is more advantageous than premature growth.

In addition, Shin Gyeongjun, an 18th century Silhak scholar, learned a lesson introspectively, while observing chrysanthemums. Shin Gyeongjun, a descendant of Shin Sukju's younger brother Shin Malju, is considered a Silhak scholar representing Honam in the 18th century. He is a person conversant with linguistics and geography. His hometown is Sunchang, Jeollabuk-do, where Gwiraejeong is famous because of Shin Malju. Shin Gyeongjun created a garden called Sunwon here and wrote about the plants he grew there, titled, Sunwonhwahwe Japseol, which means miscellaneous writings about the flower trees in the garden of Sun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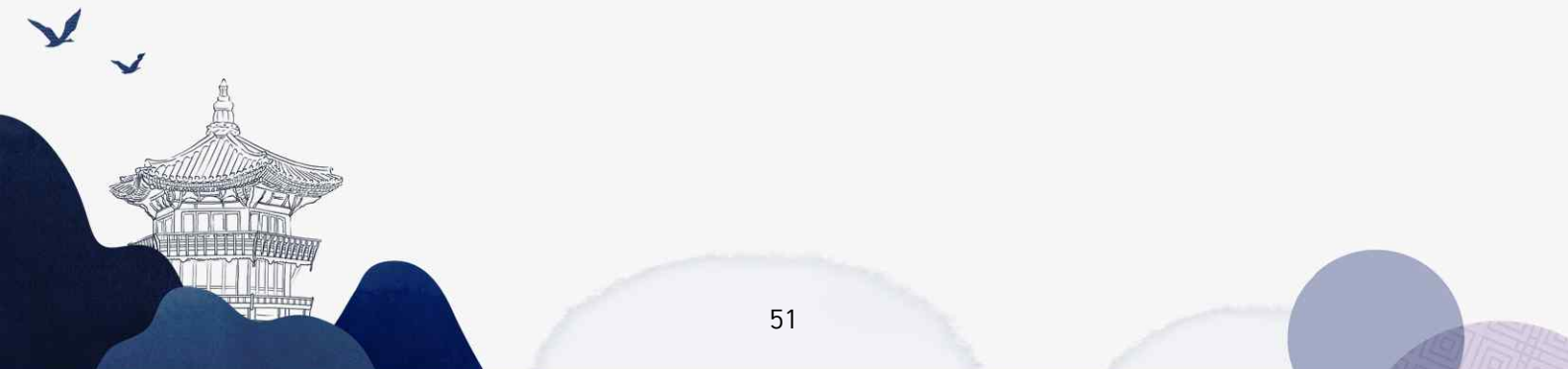
This work also refers to Gang Huian's Yanghwasorok a lot. I've pointed out that essays full of humanistic insight were included Yanghwasorok, and Shin Gyeongjun further expanded it and wrote insightful articles on various plants. I'm going to talk about some of the works later.





Shin Gyeongjun describes chrysanthemums as silently drawing back while many other flowers show off to their heart's content, blooming alone after they're done, and not considering it pain to be broken by the wind and frost, so it has the spirit of concession. He found the virtue of chrysanthemums in sayangjishim, the spirit of courtesy and modesty, or ye (禮), propriety.

In this session, we looked at the implication of Gang Huian's compilation of Yanghwasorok. Next session, let's take a look at how to enjoy flower trees.





1-5 How to Enjoy the Flower Tree

Hello, students. Last time, we looked at the meaning of Gang Huian's compilation of Yanghwatorok. In this session, we will take a look at how to enjoy the flower trees.

Yanghwatorok is not about being a philosopher. It deals with how to grow flower trees along with how to enjoy them.

In Yanghwatorok, there's a note at the end that says, 'What to find in flowers.' In this article, Gang Huian says growing flower trees should be a way to broaden the mind and cultivate virtues, and for this reason, flowers without taste and integrity do not deserve appreciation. So you should not plant flower trees randomly anywhere. He says that if you plant them next to a fence or wall haphazardly and make them near to you, your character will be greatly damaged like a martyr with strong will is mixed with a contemptible man in one room.

Yi Deokmu also left a remarkable article in the 18th century. Yi Deokmu is a scholar who shared his thoughts and will with Yeonam Bak Jiwon, who lived in today's Insa-dong for a long time and left a vast amount of writings, and is also a tasteful poet who loved literature. And he said, "If you plant garden balsam or cockscomb in a pot and make a mess, I'll definitely call you a snob, even if others call you an elegant scholar." In particular, the types of flowers to be planted and grown in pots were also defined. Like this, his taste in flowers was picky.

The next section, 'how to arrange pots,' continues on to show Gang Huian's thoughts. In order to make each pot get proper sunlight, you should put it in a place with both good shade and sunlight, but you can put tall trees in the back, small trees in front, and in case it's too small, you can put it on a chair or on a tile or brick.

Some criticize putting it face-to-face on a chair, but Gang Huian says it is okay. Also, at the time, people thought that the flowerpot should be kept only in the yard, but he says it was not necessary to do so, so he seems to think it was okay to put it in a room or a hall.



As I mentioned earlier, Seo Yugu, a Silhak scholar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left a vast book called Imwongyeongjeji (Essays on Rural Life and Economy).

It is a book that describes what kind of 'economy' is needed if a literary person wants to live in nature, not in the royal court. The economy here is a term similar to management. Of course, a significant amount of the content succeeded Yanghwasorok. So I think it's a good idea to talk about it along with Yanghwasorok. This book by Seo Yugu also details where and how to place flower pots, and where and how to plant flower trees.

The pot is best placed on a brick, and when there is no brick, you can take a piece of roof tile to support the bottom of the pot, with a slight gap, and it is better to apply red clay all around, except for only one small hole to allow air to flow and water to drain.

Seo Yugu also says that the arrangement of flower trees should be strict. For example, pine trees are good to be near oddly shaped rocks and stones, and long-grown bamboo is good to be planted in the northwest part of the garden. Small flowers are good for any flower bed or near the pond, but red or white peach blossoms should be planted in the eastern courtyard so that the flowered branches rub against the fence, and when you open the door, they will enrich the elegance of the garden. Chinese parasols should be planted in a yard in the east to receive the light of the crescent moon first, and never to be placed close to the pond.

Chrysanthemums should be planted under the eastern fence, plum blossoms on the land by the water, and plantains in pairs with the lotus next to a pavilion near water or by a cool tower. In particular, the lotus and plantains are used to avoid summer heat. I'll read a piece of Seo Yugu's writing.





It is recommended to plant plantains in pairs with lotus flowers next to a pavilion by the water or a cool tower. It is the best way to avoid the heat, as an old saying goes, "If you plant 10,000 lotus flowers and get a hundred pyeong's shade from plantains, your soul will be fragrant and your skin will become blue." But don't let them block the beautiful bamboo or orchids and day lilies. The Selaginella likes shade, so it's good to plant it under plantains, and the magnolia is especially good to be placed near the water, and if you want to plant different kinds so that flowers bloom one after another, you should plant them at random.

If I have a house with a large yard, I'd like to follow it. It is cool to hear that when you plant plantains and lotus flowers side by side and stay in their shade in the midsummer heat, your soul becomes fragrant and your skin becomes blue. It also gives details about where and how to plant large trees such as bamboo or magnolias, and small grasses such as day lilies and selaginellas. Isn't it comparable to modern landscaping?

Along with this, Gang Huian emphasized gracefulness while growing flower trees. In Yanghwasaorok, you can find many ways to appreciate flowers gracefully. He suggests how to appreciate flowers by lighting them with a lamp. It's a way in which you put an orchid on the table and light a lamp to enjoy its shadow on the wall. This way, you feel as if you are appreciating orchids in ink wash painting.

The way to enjoy shadows of flowers with a candle, suggested by Gang Huian, continued on later as Joseon writers' elegant appreciation of flowers. Kim Ahn-ro of the 16th century, a common enemy of Sarim, who deserved to be included in a biography of treacherous subjects, enjoyed the vivid shadow of diagonal branches reflected clearly on the wall, by illuminating the plum blossoms grown in a pot, which his friend gave him. And he had his son, Kim Hui, draw this. Especially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method was also applied to chrysanthemums. I'll mention it again later, but the chrysanthemum shadow play by Jeong Yak-yong, a Silhak Scholar, is widely known.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writers with luxurious taste such as Yi Yunyeong and Yi Insang used ice to enjoy flowers. Yi Yunyeong and Yi Insang were also well-known painters. One of their best friends was a man named Oh Chan, whose house was in today's Gyesan-dong. Friends with luxurious tastes came to his house and enjoyed the flower trees in a tasteful way.

When plum blossoms bloom in the middle of winter, they made a hole in a cabinet where plum blossoms were placed, blocked the hole with mica, and then looked into it to see the blossoms. They saw plum blossoms through transparent mica. The light from the mica made the blossoms look like they were in the moonlight. To add more elegance, they displayed a pot modeled after Munwangjeong, which Zhou Gong made for King Wen, and which was popular in China at the time, along with other antiques.

In addition,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ey prepared a large bowl of white porcelain filled with clear water and put it outside the door to be frozen, and then made a hole in the middle of the ice, put a candle in it, and lit the candlelight. It became a fantastic appreciation of plum blossoms with ice and candlelight. It's like lighting a candle in a crystal cup to increase the lighting effect. They enjoyed the lotus flower in a similar way. Let me read two articles describing their clear viewing of flowers.

Yi Yunyeong picked the lotus flower that was about to bloom with his hands and floated it in the water with lotus leaves, and called Im Mae to place a glass in the middle of the flower. Yi Insang lit a candle in the middle of the glass. The light shone on the glass, and the glass shone on the flower. The light of the flower and water shone again on the leaves. It was blue outside, silver inside, bright and shiny. At this time, the moon entered the western window and shed beautiful light, and it was as bright as day. Im Mae again imitated byeoktongeum (lotus wine drinking), put wine in a lotus leaf, put a hole in the stem, and suck it up. Sucking it up little by little as he liked, his mouth was full of the fragrant scent.





In winter, Oh Chan said plum blossoms bloomed, and many people, including Yi Insang and I, went to Sancheonjae. When we pierced a round hole in the plum blossom cabinet and blocked it with mica, the white petals were clear, as if they were seen under the moonlight. Munwangjeong was placed next to them, and several other stone bowls were also elegant and pleasing to my heart. Together, we discussed literature and history. At midnight, Oh Chan brought a large bowl of white porcelain, put clear water in it and placed it out the door. After a long time, it froze and about one fifth of the water turned to ice. We made a hole in the middle, poured water, covered the bowl, and placed it on the table, and it was like a bottle made of silver. We put a candle through the hole and lit the fire. The bright red energy was shining, making us indescribably cheerful.

They held a meeting to see lotus flowers at the Seoji Pond in Gyeonggi Provincial Office, and here, Yi Yunyeong picked the lotus flower that was about to bloom with his hands, floated it in the water with lotus leaves, and called a friend to place a glass in the middle of the flower. And Yi Insang lit a candle in the middle of the glass.

The light lit the glass, and the glass lit the flower. The light of the flower and the water shone back on the leaves again. It was blue outside, silver inside, bright and shiny. If you want to drink, you should drink in this atmosphere. Byeoktongeum means to drink with the lotus stalk. You bend the stalk attached to the leaf like an elephant's trunk, pierce the leaf that leads to the stalk, and pour wine into it and drink. In the past, literary people drank wine to avoid the heat, and the most elegant way was byeoktongeum. There's a saying, 'eumju ipiseo.' It means to drink wine and avoid the heat. However, thoughtless drinking is tasteless. When I see lotus flowers blooming red and lotus leaves covering the pond green, I want to recreate the atmosphere of avoiding the heat by making a hole in the stalk of lotus leaves and drinking one or two glasses of wine. As such, the beauty of growing flowers and enjoying them was amazing. You have to try this hard to add elegance to viewing flowers.





Lotus viewing is a drinking party that also serves as a summer vacation. The appreciation of plum blossoms in the second article is a beautiful drinking party in the middle of winter, around the Lunar New Year. The venue is Oh Chan's house in Gyesan-dong. During this period, placing antiques such as Bronze Age relics and items of new culture such as alarm clocks side by side in the study was very popular as an elegant practice of intellectuals.

They added noble plum blossoms to this, but they put candles in the ice to appreciate plum blossoms with their lights. Bingdeung means a banquet lit up with ice lanterns. You don't just look at the flowers. If you put in some effort, it becomes more graceful. You have to work hard on playing,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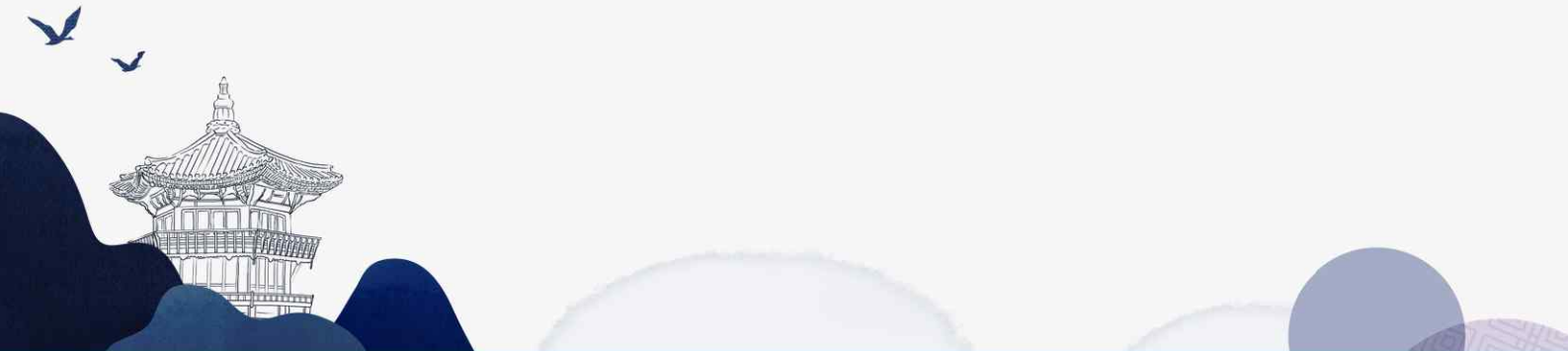
In this lecture, we've explored what kind of person Gang Huian was and what kind of book Yanghwasorok is. In the next lecture, let's study more by reading the important parts of the Yanghwasorok.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 1 周

《养花小录》的理解

1-1

序言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古典新读》之韩国园艺与盆栽的古典著作《养花小录》课程主讲的李钟默。本节课是第一节课，将以姜希颜的“养花小录的理解”为主题进行展开。

图中所示的这幅画描绘了位于白岳山山麓的三清洞一座叫做“玉壶亭”的别墅。这座坐拥着小山和小溪的巨大而美丽的房屋的主人是纯祖年间的文人金祖淳。由于他是开启19世纪擅权政治之门的人物，因此拥有这样的别墅并不奇怪。

这幅画被收藏在国立中央博物馆，在网上搜索就能仔细看到。但可惜的是，画画的人我们无法得知是谁。推测大约为19世纪中期所作。现在让我们来仔细看一下这幅画。

上端的山峰上有一块巨大的岩石，上面写着“日观石”，这几个字实际刻在了岩石上。这是什么意思呢？意思是看日出。正如熟为人知的诗句“泰山高，天下坟”中所看到的那样，泰山曾被认为是世界上最高的山。泰山最高的山峰的名字是日观峰。因此白岳成了泰山，日观石便是日观峰。玉壶亭可以说是泰山的迷你模型。

并且，在其中间有一块巨石，上面刻有“玉壶洞天”四个字。玉壶，意为用玉制作的坛子里装着冰冷的冰块，象征着高洁的人品。洞天是山谷的意思，即玉壶溪谷的意思。这里所指的是玉壶亭所在的整个山谷。

其左边也能看到字，上面写着乙亥壁。这是乙亥年1815年房屋主人金祖淳刻下的字。在其旁边还写有一首诗。“山光如邃古，石器可长年”，意思为“山色像是远古一般，岩石的气息能够历经漫长的岁月。”在金祖淳的文集中也有这首诗，这是在名为“飞来亭”的亭子里所写的作品。

飞来意为像神仙要飞来一般。坐在飞来亭便有种成为神仙的感觉。乙亥壁下面的茅草凉亭正是飞来亭。再看其右边写着“惠生泉”的字样。在中国的惠山有一个水味道很好的泉。这里的泉水也因味道好而被称为惠生泉，标榜了有恩惠的泉水涌出之意。



在玉壶亭，除了里屋和厢房等正式建筑外，还能看到很多亭子。惠生泉右侧的草房是山半楼，也就是位于山的一半左右的位置。其下面可以看到用竹子立柱的竹亭。此外，左边用瓦片建造的亭子是叠云亭，意为被叠叠的云彩覆盖的层山中的亭子。

这幅画最为具体地展现了朝鲜时代文人的庭院，因此具有重大的意义。我们来放大一下这张图。

在进入院子的入口处，像门一样矗立着被称为“槐木”的槐树和写有“松”的松树。其前面写有“翠”的是翠屏，就是绿色的屏风。这是为了不让人从外面窥视内部，用木头设置的屏风。在飞来亭下面还能看到写有“盘松”的松树。并且，其上面写着“丹枫台”，可以得知这里的树木是枫树。因其下面放在木架上的是葡萄树，所以标注了意为葡萄木架的“葡萄架”。

而且，从门进去的通道上放着很多花盆。里面有古松和怪石。水槽里有莲花。旁边的地里种了芍药，映山红，芭蕉等。在右上角也有阶梯式花坛，种有芍药。阶梯式花坛若是去南山韩屋村看，围墙下面便是这样的。

朝鲜时代的文人们梦想中的庭院应该就是如此了。之所以详细地介绍这幅画是因为它最能展现朝鲜时代庭院的面貌。这种花木林立的庭院，若是朝鲜时代有韵味的文士之家，应该与此不会有太大的不同。

实学者茶山丁若镛的家位于明礼坊，也就是如今的明洞。这里在当时也是人来人往的地方，车马喧嚣。但是因为这个房子太小，无法单独挖莲花池，也无法侍弄合理的庭院。因此丁若镛把院子缩小了一半，找来花木和果树，把它们移植到花盆里种满。

种植了从日本引进的花和四棵果实美丽的安石榴品种的石榴，两棵像盘松一样侧枝伸展的棱枝榴品种的石榴，以及一棵不结果的百叶榴。还种了两棵朝鲜书生们最喜爱的梅花。此外，还在花盆里排列种植了两棵梔子树，一棵山茶树，一棵梧桐，一棵檀树，一棵木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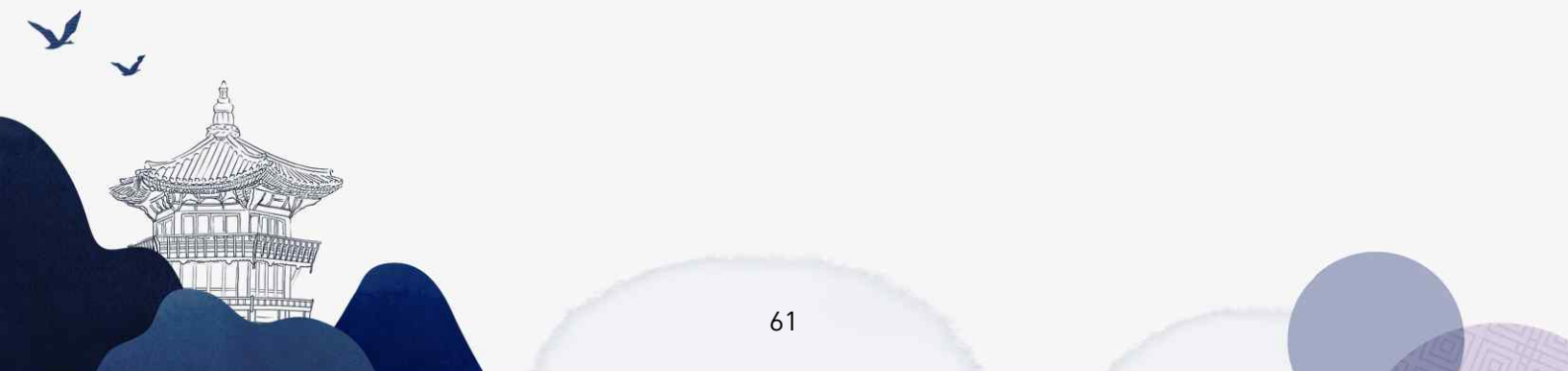
并且，院子里还有分别种植了被称为金盏花、银盏花的金色水仙花和银色水仙花的4个花盆，以及将两者合种在一起的花盆。尤其是菊花，由于品种各不相同，足足摆放了十八个。然后用竹子搭建了花坛的栏杆。种植在花盆里和放在院子里的花木种类相当丰富。



这节课所讨论的养花小录的主题是用于装饰如图所示的庭院的花和树木。这幅画是19世纪的文人家。特别是丁若镛家院子里的盆栽和树，几乎涵盖了在这节课中我们要讲的养花小录中的内容。

遗憾的是，由于无法看到编纂《养花小录》的朝鲜初期庭院的画，所以只能给大家看玉壶亭图。在此主要是想告诉大家，朝鲜时代文人的家并不简陋，而是如此的华丽。并且还将超出我们想象之多的多样品种的花和树木种植在花盆里装饰房子，并且，为此也具有相当了得的园艺技术。

现在，以养花小录为中心，在这节课我们将了解400多年前朝鲜的文人们是如何在花盆里种植花木的。下节课我们将探讨园艺的古典著作《养花小录》和姜希颜。





1-2 园艺的古典著作《养花小录》和姜希颜

各位同学，大家好。这节课我们将探讨园艺的古典著作《养花小录》和姜希颜。

朝鲜时代的文人们对花的喜爱有特别之处。也有人由于爱花，把家命名为花庵或百花轩。花庵是18世纪一个叫作柳璞的沉迷于花之人的家的名字，他留下了关于花木的著作《花庵随录》。百花轩是高丽末期的文人李兆年的号。花庵是花之家，百花轩是有百种花之家的意思。

不仅如此。高丽或朝鲜时代的文人们还从梅花、莲花、菊花、竹子等书生喜爱的花或树中取名，或将以花和树为素材的文学作品的诗句作为家的名字。当然，中国和日本也都差不多。朝鲜中期的学者郑述种植了100棵梅花，取名为百梅园，朝鲜末期的画家赵熙龙将自己的家命名为梅花书屋。他画的《梅花书屋图》巨大且华丽，无论在当时还是现在都备受人们的喜爱。

不仅如此，那时的人们还把花拟人化，并与之玩耍。梅花被称为清客，兰花被称为幽客，菊花被称为长寿客。并且，菊花被称为美丽的朋友（佳友），莲花被称为干净的朋友（净友），梅花被称为清澈的朋友（清友）。此外，退溪李滉以哥哥的意思把梅花称为“梅兄”，并与梅花对诗。在他去世的那天，曾说不想让梅兄看到他不干净的样子，还留下了把它搬移的遗言。

由于人们如此热爱花木，自然也就出现了栽培花木所需要的实用书籍。在中国，16世纪出现了《群芳谱》等花卉专业书籍，在此之前的宋朝和元朝，也出现了以菊花、梅花、竹子、芍药等多种花卉为对象的实用书籍。诸如讲述菊花的《菊谱》，讲述梅花的《梅谱》，讲述竹子的《竹谱》，讲述芍药的《芍药谱》等书。只是它们都是研究单一品种的书。

在韩国也有不亚于这种著作的花卉实用书籍，正是1449年姜希颜编纂的园艺书《养花小录》。养花小录探讨了16种花木，因此它作为综合性园艺书籍，在东亚似乎尚属首次。此后，在朝鲜有关花木的著作中，这本书也产生了深远的影响。在有关朝鲜后期花卉的著作中，作为朝鲜时代参考文献之首的便是《养花小录》。这样的书我们将在后面进行探讨。

编写养花小录的姜希颜(1418 ~ 1465)，字是景愚，号是仁斋。他家祖籍是晋州，是高丽末期至朝鲜初期培养出多名著名官员的名门望族。祖父姜淮伯是高丽末期到朝鲜初期的文人，曾担任过正二品的政堂文学。在晋州的断俗寺内有一棵拥有六百年历史的梅花树，被称为政堂梅。据说就是这位种下的。



并且，父亲姜硕德与沈温的女儿结了婚，世宗也与沈温的女儿结了婚。世宗和姜硕德便成了连襟关系。他儿子姜希颜的姨父是世宗。

弟弟姜希孟是研究朝鲜初期农业史的《衿阳杂录》的作者。并且还编纂了《晋山世稿》，这本书收集了祖父姜淮伯和父亲姜硕德、哥哥姜希颜的诗文，将三代的文集合并在一起，称之为世稿。在东亚，这样将三代的文集合并在一起的世稿是由姜希孟首次编纂。

这本书于1474年以木刻本发行，现在被指定为宝物。这本书的卷四就是养花小录，被评为最善本。并且卷3是仁斋诗稿，是姜希颜的文集。里面收录了66首诗，既有他亲自画的画，也有他亲自创作的吟咏花木的诗。

姜希颜年轻时主要在奎章阁里工作，进行了很多重要的研究。不仅学问优秀，而且诗、字、画都很出色，因此被称为“三绝”。姜希颜的文集《仁斋诗稿》是由当时最优秀的文人徐居正题写了跋文，文中称姜希颜在诗书画上已自成一家。

徐居正认为，姜希颜的诗与唐代的杰出诗人王维和韦应物相似。王维和韦应物都是以歌颂山水间生活的清新美感为特征，姜希颜的诗也是如此。实际去读他的诗并不难，可以感受到清新的味道。

并且，他的字体兼具晋朝的王羲之和元朝的赵孟頫之风，王羲之作为古今最优秀的书法家，被称作有书法圣人之意的书圣。若想到杜甫被称为诗圣，便可以推测出他的地位了。此外，赵孟頫被评为继王羲之以来最好的书法家，他的字被称为赵孟頫体，对高丽末期和朝鲜初期都产生了极大的影响。

虽然姜希颜的字迹肯定也受到了他们的影响，但徐居正说他已超越了单纯的模仿，自行领悟了其中的奥妙。明朝送来的玉玺上刻有“效仿上天治理百姓，后世将永久昌盛”之意的“体天牧民永昌后嗣”，据说就是他的字。但遗憾的是，这个玉玺没能传承下来。

尽管如此，从写国玺上面的字这点本身就可以推断出他的字是有多么的出色。又称乙亥字，在世宗时期1455年铸造了金属活字，据说就是用了当时最优秀的姜希颜的字迹。乙亥字和甲寅字都是代表朝鲜的金属活字，从用乙亥字刻成的书中也可以欣赏到他的书法。



据说他的画拥有宋朝的郭熙和刘道权的风貌，这两个人都被评为是当时最优秀的画家。郭熙和刘道权作为山水画的大师，对朝鲜初期的画风有着很大的影响。从姜希颜的文集来看，画有描绘美丽女人的《丽人图》和耕种农田的《耕耘图》，以及画有智异山青鹤洞和平安道菁川江的画轴被认为是天下之宝。现在流传下来的《高士观水图》，画的正是望着水的书生。

在国立中央博物馆搜索姜希颜的高士观水图就能看到这幅画。另外，还可以看到姜希颜和申夫人等人一起作的画，这里画的是《养花小录》中出现的怪石。关于怪石，我们以后再说。

右下角有几个花盆，这是我们后面要讲的老松。左边可以看到黑色的竹子，叫做“乌竹”。在养花小录里也有出现。我认为正是由于姜希颜喜欢亲自种植花和树木，喜爱怪石，所以他的画作也更加生动。姜希颜就是这样的人。

姜希颜真是个爱花之人。他喜欢每天读书养花。除了上班时间或问候父母的时间外，都是以养花来消遣的。早晚照顾花，长期以来就自然习得了开花的方法。虽然也参考了自古流传下来的方法，但没有先前方法就到处询问，再加上自己的经验。

姜希颜位于南山下的家名叫“四雨亭”。“四雨亭”这个词在朝鲜时代很受欢迎。但是从尹善道的《五友歌》中可以看出，应该使用朋友的“友”字，而不是“雨”，之所以没有那样写是别有用意的。

比姜希颜小50岁的世宗的孙子富林君李湜也有同样名字的亭子叫“四友亭”，“四友”意为“四种朋友”。因为“雨”字和“友”字读音相同，所以悄悄换了字。杜甫也曾开过这样的玩笑。虽然姜希颜并没有解释家的名字为什么叫“四雨亭”，但大概也是同样的意思。

富林君李湜的四个朋友是梅花树、杏树、桃树、梨树等花朵非常美丽的四种树，不知道姜希颜是把什么植物作为朋友。姜希颜的四雨亭里也有松树、竹子、菊花、梅花、兰花、瑞香花、山茶树、石榴树、橘子树、菖蒲等多种花木。很有可能以其中的松树，竹子，菊花，梅花作为四友。

其中，瑞香花是高丽时代和朝鲜时代深受人们喜爱的花，虽然现在韩国也有，但并不常见。白色或黄色、紫色等颜色的花在冬天盛开，据说花香非常美妙。我也在植物图鉴里看到过。剩下的你们应该都听说过。



但比较特别的是石榴树，山茶树和橘子树。据说橘树还结了果实。即使现在在首尔也很难栽培，但当时是装在花盆里放在温室中栽培的。也就是说他的栽培技术非常出色。

正如此，姜希颜有很多花。朋友若是送兰花和竹子盆栽给他，他还回赠橘树并作诗予以感谢。随着珍贵的花越来越多，朋友们都前来赏花，即使独自一人赏花也很开心。据说梅花盛开时，他会在树下独自饮酒作诗；种下竹子后，将其兴致写进诗里。

在他的诗中写道：“近来学习了养各种花的方法，按花木适宜的地方分别将其种在土地和花盆里。”可以得知他的花卉栽培技术已经达到了相当的境界。正因他有学问和体验，才能编纂出《养花小录》。养花小录正是以这样的体验为基础编纂而成的书。

《养花小录》最前面是姜希孟和姜希颜的序言。姜希孟说，虽然哥哥姜希颜有出色的能力，但他并不想领先于人，也无心想通过人脉获得晋升。虽然人们对他在这个世界上没有受到重用而感到惋惜，但他本人却以养花为乐。而且正因未用于世，从而编纂《养花小录》以体现其微意。因此，这本书并不单纯是园艺学，它更展现了人文学的反思。关于这点我会之后再谈。

并且，虽然姜希颜于1449年8月被任命为副知敦宁，负责管理王室人物而不是宗亲。但由于这是无事之职，他在结束早会或早晚向父母请安的闲暇时间，会把其他事情都推掉，以养花为职。据说他的朋友们如果买到了奇异的花，都会拿过来给他，于是便拥有了很多种花。并且，像牡丹和芍药这种可以在地里种植的花和在花盆里种植的花栽培方法不同，加上在中国文献中已有详细的记载，所以文中就没有进行过多探讨。

接着对老松、万年松、乌斑竹、菊花、梅花、兰慧、瑞香花、荷花、石榴花、栀子花、四季花、山茶花、紫薇花、杜鹃花、橘树、石菖蒲等16种植物加上怪石，对共17种装饰花园的花、树和石头进行了记述。正如他本人所说，和怪石一起全都是在花盆里栽培的植物。

这里的老松是在花盆里栽培的很小的松树。虽然一谈起老松，人们会想到落落长松，但就像现在植物园里也能看到的那种，它只是一棵只有几十厘米大小的小松树。这就是前面姜希颜的画中种在花盆里的那颗松树。万年松生长了一万年，应该会非常大，但事实并非如此。这是在躺高山地带，蜿蜒生长的桧树。又称卧香树，是采挖后在花盆里培育出来的。



乌斑竹也叫乌竹，是整体躯干呈黑色的竹子。兰蕙是兰草和蕙草，据说蕙草的叶子比兰草稍微更大一点，但香味不及兰草。但最近常见的不是兰草，而是兰花。屈原文章中所出现的真兰草在朝鲜极为珍贵，从中国购买假货的情况屡见不鲜。据说真正的兰草不仅是花，其树干和叶子上也都散发出香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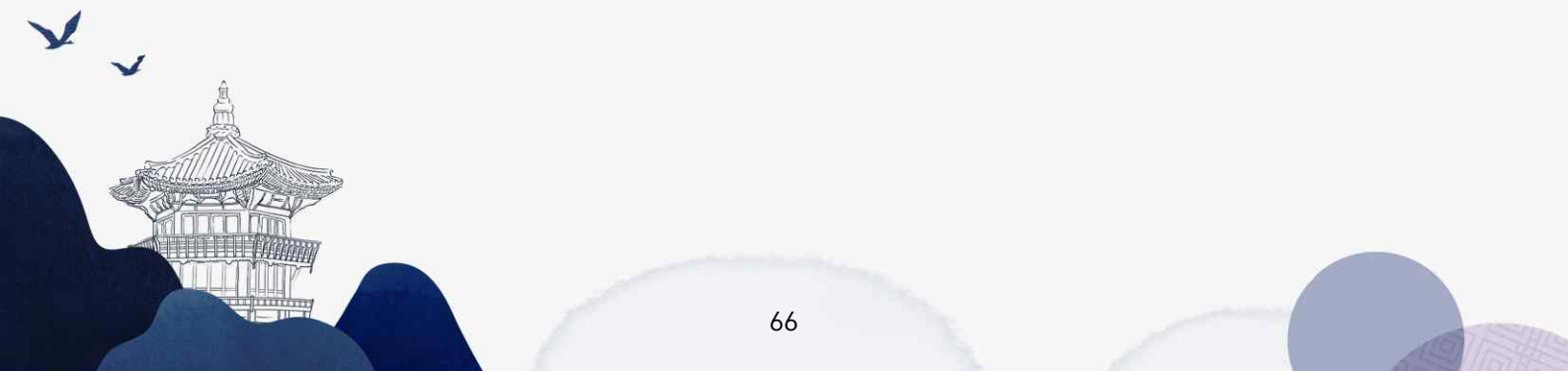
瑞香花在前面已经看过。四季花也叫月季花，在南方地区四季开放，与玫瑰几乎相似。山茶花是指冬柏，紫薇花就是指百日红。石菖蒲生长在溪边或潮湿的岩石缝里，香如兰草，叶子修长。花是泛黄的绿色。其余的花由于现在也很容易见到，这里就不做赘述了。

《养花小录》继17种花之后，在后来又记载了花木在花盆中栽培的方法、快速开花的方法、花不喜欢的东西、养花时应当采取的措施、保护花的方法、排列花盆的方法、保管种子或根部的方法、养花的意义等项。在引用中国部分文献的同时，还补充了作者本人习得的技术。并且记录了施肥的方法和插枝或嫁接的方法。

其中，中国文献中出现的有些方法在朝鲜并不适用，因此提出了其他的方法。例如，虽然中国文献中写道，将马粪泡在水里浇花，三、四天后就会开花，但有记录显示，按树木的不同，有些树洒上马粪后，树木就会死亡。并且说道，花不喜欢孝子和孕妇，如果他们用手折断树枝，那么几年都不会开花，这让人难以置信。这句话是引用了中国文献。排列花盆或栽培花木的意义等我们将在后面进行探讨。

如此，《养花小录》是记载了将当时多样的花木装入花盆进行栽培的方法之书。这里所提到的花木即使现在在首尔也很难栽培。在首尔，不知道是否有人能成功地把山茶花和橘树种在花盆里。你们看过有把百日红种在花盆里的吗？不得不说，姜希颜种植花木的手艺真是非常了不起。

这节课，我们了解了有关养花小录和姜希颜的相关内容。下节课，我们将探讨养花小录是以怎样的方式记述的。





1-3 养花小录的体裁

各位同学，大家好。在上节课，我们了解了有关养花小录和姜希颜的相关内容。这节课，我们将探讨养花小录是以怎样的方式记述的。

养花小录从大体来看，首先记述了有关花木的名称等一般性史实或相关文学作品，接着记述如何栽培，使用什么样的花盆，在温室如何保管等最实用性的知识。并且最后还附上了一篇展现人文性反思的随笔。过去学问的特点是自然科学与人文学不分离，将两者同时进行思考。今后的学问也有必要考虑这种综合精神。

现在我们以莲花为对象，来具体观察养花小录的体裁。大家看到的照片是我们前面所介绍的木刻本《晋山世稿》中记载的养花小录。它被收藏在成均馆大学，为了防止非法复制而做了较为碍眼的标记，但其内容本身和被指定为宝物的资料是一样的。进入成均馆大学图书馆网站搜索，就能看到这本书。

这一页是介绍莲花的部分。首先从中国文献中引用有关花木的一般性内容。这里引用了叫作《尔雅》的古代中国文献。介绍了莲花各部位的名称，“茎”称“茄”，“叶”称“蓊”，“花”称“菡萏”，“果实”称“莲”，“根”称“藕”，“籽”称“蒴”。翻阅“尔雅”的话，“茎”和“叶”的汉字标记应该是写在后面的。

接着是周敦颐的《爱莲说》。并记录了宋朝一个叫曾端伯的人称莲花为“净友”。去陶山书院的话，有一个叫做“净友塘”的池塘，这便是意为有干净的朋友莲花的池塘。“净友”是莲花的别称。

周濂溪的《爱莲说》原本就以名句广为人知。下面我来朗诵一遍。

予独爱莲之出淤泥而不染，濯清涟而不妖，中通外直，不蔓不枝，香远益清，亭亭净植，可远观而不可亵玩焉。莲，花之君子者也

周濂溪的《爱莲说》原本就非常有名。莲花虽然生长在肮脏的泥塘里，但保持干净，且并不显妖艳。它的（茎）中间是空的，但外形挺直，树枝和藤蔓不会向旁边伸展。香气虽然扩散很远，但并不蛊惑人心，只是淡淡的清香。因此虽然心里总是空着，但绝不优柔寡断，也没有失去坚强的意志，包含了外柔内刚之意。所以说莲花可谓是君子之花。



这篇文章在朝鲜时代有着极为深远的影响。很多池塘旁边的亭子都叫作“君子亭”，就是从这篇文章中得来的。所谓君子亭，其旁边当然要有种君子之花莲花的莲花池。以莲花这样的精神作为朋友之意，除了“净友”，还有有很多名为“友莲”的书斋和亭子。并且，以景仰周濂溪之意，还取了“景濂书院”的名字。景濂书院是位于庆北金泉市城大洞的书院，是士林的大师金宗直为纪念创立景濂堂而建造的。

朝鲜时代的文人们非常喜欢这首诗，从每句诗里都取词给莲花池周围的亭子命名。叫做濯清亭，远香亭，清远亭，清香亭，益清亭的亭子到处都有。让我们看看是取自爱莲说原文的哪些字。

有像“濯清”、“香远”、“益清”这种是直接取自原文的，也有像“清远”、“远香”、“清香”这样改变文字顺序取名的。另外，还有从“亭亭”中取字，起为“亭亭亭”这种有趣的名字。徐居正还将亭子的名字作为自己的号。也有人以爱莲说后文出现的“莲之爱，同予者何人？”中的“同予”给亭子命名。

继我们前面所看照片中的爱莲说和曾端伯的文章后，介绍了栽培莲花的方法。首先介绍了种莲法，就是种莲子的方法。将莲子头部磨薄后涂上泥，待晾干后放入池中。从宋朝和元朝时期的中国书籍中，找了相当一部分最重要的方法，但按照朝鲜的栽培方法进行了修改。从这一点看，《养花小录》可以说是姜希颜的个人著作，也是15世纪当时朝鲜园艺学的总集。

接着记载了莲花所忌讳的东西，据说如果把梧桐油洒在池塘里，它们都会死。然后介绍了在花盆里种植莲花的方法。尤其这部分值得注意。据说如果在一个池塘里同时种下红色花和白色花，其中一朵就会凋谢。我是专攻人文学的人，也没有亲自栽培过莲花，所以不知道姜希颜的话是否正确。如果有对这些感兴趣的同学，不妨亲自尝试一下。

此外，加上都城内狭窄的房子里很难挖莲花池，所以建议将大的陶器埋在地下，分别种植白色的花和红色的花。并且在陶器旁边同时种植蒲草，浮萍，线叶藻等水草，再放入五六条小鱼就像真正的莲花池一样。这叫做盆莲，也就是花盆里的莲花。

1692年，在承政院工作的赵德麟，按照养花小录的方式，在花盆里种了莲花。赵德麟祖籍汉阳，在英祖时期担任承旨，后因病辞职，退居洛东江上游培养后辈。那是他在承政院担任承旨时候的事。他在承政院院子里的空旷处筑起石头做成坛，铺上白沙，盖上草坪，再放上两个土花盆，装满水和泥土，然后再种上莲花。正好是刚进入炎热的时期，赵德麟由于记录君令，眼睛疼痛，而看见绿色的树叶和鲜绿的花枝在风中摇曳，莲花香味弥漫在衣服上，疲劳也便烟消云散。



那时下起了阵雨，他饶有兴致地观赏了高处的荷叶接住雨水，缔结成像玉珠一样圆圆的水珠，然后掉落下来的场景。若是去郊外的餐厅，时常能看到红色的塑料盆里放着睡莲。只要再稍微倾注一点心血，就能把它打造成像姜希颜和赵德麟一样美丽的小莲花池。

作为参考，栽培莲花的方法在朝鲜后期有了进一步的发展。徐有渠引用养花小录对栽培法进行介绍，在莲花开放前，用长满青黛的水浸湿纸后上再涂在花蕊上，用纸包裹住花蕊，花就会开得鲜绿。

徐有渠是正祖和纯祖年间活动的实学者，在学术史上赫赫有名，他留下了伟大的著作《林园经济志》。这本书其中的《艺畹志》讲述了花木的名称和栽培法，继承了养花小录的成果。

养花小录中还像莲花一样介绍了种山茶花种子的方法。山茶树还要插枝，瑞香花等多个品种也都详细记载了这个方式。也有像梅花一样嫁接的，方式极其精巧。梅花嫁接的故事我们在后面再讲，这里只是简单介绍一下嫁接的方式。

瑞香花是以这样的方式嫁接的。将树枝剪下稀疏地插在花盆里，放在阴凉处若是活下来的话，就把低矮的树枝稍微剪短一些，再把它弯曲后埋进土里。在姜希颜的时代也通常用这种方式，现在不知道是怎样做了。

在介绍完栽培法后，姜希颜写了一篇展现人文学反思的随笔。从这点来看，养花小录超越了单纯的园艺书，也可以说是人文学书籍。从第二行开始是讲述种植莲花意义的随笔。这篇文章意义高尚，我来朗读一下。

人生在世，若只是埋头名利，不停苦干，至死方休，那是为何呢？脱下官服，拂去尘世的尘土，即使无法在山水间逍遥，在公务闲暇时，清风吹拂，明月映照中荷花的香气四溢，茭白和香蒲的影子摇曳，鱼儿也在水草间徘徊，敞开衣领，一边散步一边吟诗徘徊，虽然身体被名誉所束缚，但精神却超然物外，以解情怀。古人曾说：“如果在朝廷和市场上挥着缰绳忙碌，就会产生郁闷的心情，如果悠闲地在森林和田野里散步，就会产生闲适的心情。”

无论是过去还是现在，人们都无法为了荣华富贵和权力享受安逸的日子。种莲花赏玩的意义是想短暂逃离这种氛围。即使在夏季的炎热天气里，找个吹着凉爽的风，月光明亮的日子，去莲花池观赏莲花，看到水里游戏的鱼，水草在风中摇曳的样子，看着这样的风景散步，即使身处城市，心也会自然地融入大自然中。



在这篇文章中,他引用了古人的话:“如果在朝廷和市场上挥着缰绳忙碌,就会产生郁闷的心情,如果悠闲地在森林和田野里散步,就会产生闲适的心情。”这句话可以在王羲之的《兰亭集序》中看到。

王羲之是前面所说在姜希颜之首,以朝鲜时代文人书法中的模范人物而闻名。王羲之在353年与当时的名士在会稽叫做山阴的地方举行了集会,收录了当时诗作的书就是兰亭集。他在这里写了序言,并用精彩的字完成了序言。

后代仿效他的书帖成为了练字的人们的教本。姜希颜应该是替换了王羲之的这句话,认为即使不去树林和田野,而是去朝廷和市场,只要懂得喜爱花树,就会解除郁闷的心情,产生畅快的心情。

这超越了栽培莲花的植物学信息,因有这样省察的文章,使《养花小录》的价值变得更高。到目前为止,我们了解了《养花小录》包含了什么内容。下节课我们将探讨创作《养花小录》的意义。



1-4 创作《养花小录》的意义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考察了养花小录的内容。这节课我们来探讨一下创作《养花小录》的意义。

之前我们读过一篇有关莲花的人文性反思的随笔。养花小录里的每种花也都有这样的随笔，养花小录最后所附的“养花之意”作为跋文，综合说明了书生养花木的意义。简要概括如下。

有一天傍晚，姜希颜趴在院子里培土种树，有客人找上门来，问他为什么吃这样的苦。并批判道，虽然悦目，但却扰乱了心灵。古人曾称“玩物丧志”。这是东亚学者们所警惕的话。也就是说，围棋、钓鱼、乐器演奏等和养花等兴趣爱好对于文雅学者的心灵学习有害。

作为士林的象征，提倡政治改革的静庵赵光祖曾批判道：“喜欢骑马的人、喜欢种花草的人、喜欢鹅或鸭的人，会因外界事物倾心而陷于执着，最终无法达到真理。这就是所谓的玩物丧志。”“博学小人”一词也出自同样的文脉。意思是知道很多并不意味着就能成为君子。他认为，培养花木的知识太多，就会妨碍培养君子的道德。

对此，姜希颜这样回答：如果真的只强调道德，那么岂不是身体会像枯树一样干枯，心灵像艾草一样凌乱。并且说，栽培花木也算是一种学习。世界上有很多的事物，都有其各自的道理，只有坚持探索才能获得真正的知识，只有这样才能获得对事物的正确认识。否则就会成为受世间万物驱使的存在。

于是提出了“观物省心，知至意诚。”这番话。看到事物反省自己，知识就会变得渊博，心灵就会变得诚实。说得真好。这就是种植花木的意义。朝鲜时代学者们喜欢用的“格物致知”，“观物察理”也正是此意。格物致知的意思是遇见事物导出知识，观物察理的意思是观察事物考察真理，因此现在也可以说是合适的学习方法。

再来介绍种植松树的意义。苍官是头戴绿冠的官吏之意，是松树的别称。因为种植松树可以学到即使在冬天也不会凋谢的节操。秋史金正喜在岁寒图中所记载的《论语》中的句子，“岁寒，然后知松柏之后凋也。”

养花小录的第一章是老松，即苍劲的松树。前面也说道，养花小录在植物的栽培法后面会附上随笔，松树也记载了这样的随笔。下面我来朗读一下。



某个公主的驸马弄到了一个奇怪的老松花盆。侍从为了谄媚取宠，到老松花盆前拿出剪刀，剪去了陈年的树枝，剥去了皱巴巴的皮。驸马看到了大惊，问他：“为什么要这样做？”侍从谄媚地笑着说：“这是为了去除旧的，培育新的。”驸马笑着说：“‘把方形的竹杖削圆，把铜花瓶古董洗白。’原来说的就是如此啊！”我看后世的臣子一进入宰相的行列，全都轻率地改革旧法，说什么“旧法弊端重重，不如用新法。何必执著于旧物？”早上制定的法律晚上又进行修改，旧的法律几乎所剩无几，国家也因此变得岌岌可危。这和侍从减去旧的东西又有什么不同呢？

怎么样？去除旧东西，培养新东西之意的“除旧养新”反而会带来弊端。这几个字分别是消除的“除”、古老的“旧”、培养的“养”、新的“新”。这是对于急躁拙劣的改革一针见血的文章。在这篇文章中，把四方形的竹杖削成圆形的“削圆方竹杖”一词非常有趣。唐朝时，一位名叫李德裕的文士到润州的甘露寺游玩，他送给那里的僧人一把四方形的奇特的竹杖。这支竹杖是波斯生产的，是四方形的竹杖，每节都刻有胡须和牙齿图案，非常珍贵稀有。

然而，不知道其价值的僧人却把它削成了圆的，并用漆把它涂成黑色。对此，他作了一首诗：“削圆方竹杖，漆却断纹琴。”玄琴会出现各种纹样的裂痕，这被认为非常珍贵。但却由于爱惜，而把它涂成黑色就很愚蠢。

另外，“洗白古铜饼”这句话是指把生了黄锈才有魅力的铜花瓶洗干净使其变成白色的愚蠢。以前的人们把这叫做煞风景。这是姜希颜看到松树所习得的。

正如我们前面所看到的，莲花可以让人学到出淤泥而不染的君子之心。菊花直到其他花都凋谢后才会结霜绽放。可以学到不与其他花争艳的谦让之心和战胜寒霜等考验之心。之前读过宋朝周敦颐的《爱莲说》，这篇文章的开头是这样的。“予谓菊，花之隐逸者也；牡丹，花之富贵者也；莲，花之君子者也。噫！菊之爱，陶后鲜有闻”因隐士陶渊明热爱菊花，所以菊花特别成为了特别的象征。

所以姜希颜得出了要“寓於目 體於心”的结论，也就是要用眼睛去看，用心去体会。也就是让人用眼睛看莲花，但要用心去体会莲花的美德。并且说，如果把植物的风貌当作自己的德，那么就会有很多益处，心情也会变得舒畅。

在铺着昂贵的地毯的高屋大院里，让戴着玉珠和翡翠的女人奏乐，让妓女们唱歌的人们虽然也是想要愉悦心灵和眼睛，但这最终只会如斧头般重伤心性，萌发骄傲吝啬的心，相比之下，养花不是更好吗？



在姜希颜之后，书生们养花树的意义也不尽相同。有位以长寿著称的朝鲜中期的学者叫洪裕孙。他虽然是书吏之子，但志向远大，在士林的宗匠金宗直门下学习，后来以学者扬名。虽然他以76岁结婚得子，长寿到99岁而广为人知，但实际上他是78岁去世。后辈想早点出人头地而到处奔波，结果生病了，并向在医学上有造诣的洪裕孙倾诉了苦恼。

对此，洪裕孙说心态比医药更加重要，而对于后辈喜爱的菊花，洪裕孙这样说道：“菊花之所以能够在晚秋盛开，战胜冰霜和寒风，独自屹立于各种花卉之上，就是因为它不快。”这番话让人明白等待大器晚成比早熟更重要。

另外，18世纪的实学家申景濬也是看到菊花，开始自我省查的学习。申景濬作为申叔舟的弟弟，申末舟的后代，被评为代表18世纪湖南的实学者。他是从语言学到地理学全都精通的人物。他的故乡是全罗北道淳昌，是申末舟以来归来亭出名的地方。申景濬在这里建造了一座名为“淳园”的园林，并留下了有关在那里栽培植物的著作《淳园花卉杂设》，也就是关于淳园园林中花树的杂述。

这部著作也在很大程度上参考了姜希颜的养花小录。养花小录附载了展现人文性省思的随笔，申景濬对此进一步扩充，写了对多种植物进行省思的文章。我打算在后面介绍几部作品。

申景濬认为菊花无言退后，待各种花尽情绽放之后，再独自盛开，即使经历风霜也不把折断当作痛苦，因此具有谦让的精神。他找到了菊花谦让之心的美德，即“礼”。

这节课我们了解了姜希颜编纂养花小录的意义。下节课我们将探讨赏玩花木的方法。





1-5 赏玩花木的方法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探讨了姜希颜编纂养花小录的意义。这节课我们来探讨赏玩花木的方法。

养花小录并不是为了成为哲学家所作的书。而是在讲授栽培花木方法的同时，探讨如何赏玩花木。

养花小录后面附有“要在花中寻找的东西”条目。在这篇文章中，姜希颜说种植花木的意义应该是成为扩大心智、涵养德性的方法，因此，没有韵味和节操的花，没必要玩赏。所以，花树也不能随地乱种。在栅栏和围墙旁边随意种植，考得很近的话，就像意志火热的烈士和卑劣的男人混在一个房间那样，会有损风格。

18世纪的李德懋也留下了值得瞩目的文章。李德懋是与燕岩朴趾源志趣相投的学者，在如今的仁寺洞曾生活了很久，留下了庞大的著作，也是热爱文学的有韵味的诗人。因此，他说：“如果在花盆里乱种凤仙花和鸡冠花之类的花，即使别人叫我优雅的书生，我也定会说我是个俗人。”特别是种在花盆里养的花也有固定的种类。对花的爱好就像如此的挑剔。

此外，还单独设立了“排列花盆法”。为了使花木获得适当的阳光，应该把它们放在阴凉和阳光都适宜地方的花盆里。较高的花木放在后面，小的花木放在前面，如果特别小可以放在椅子上，也可以放在瓦和砖头上。

并且，虽然也有人批评把花木正对着放在椅子上的方式，但姜熙安却觉得无妨。另外，当时的人们认为盆栽必须放在院子里，现在看来也没必要非得那样，放在房间或地板上也是无妨的。

正如前面所说，朝鲜末期的实学家徐有渠留有一部巨作，名为《林园经济志》。这本书讲述了文人若不想在朝廷，而是在山水自然间生活，需要什么样的“经济”。这里的经济与经营相似。当然，这里面相当部分的内容也继承了养花小录。因此，我们也可以把它放在一起讨论。徐有渠的这本书里也详细论述了花盆应该放在哪里，花树应该放在哪里以及如何种植。

这本书记载说，花盆放在砖上最好，没有砖的时候用瓦片支撑花盆的底部使其稍有间隙，再用黄土涂在其四周后，只留一个小洞让空气流通以及排水更好。



徐有渠说,布置花树的地方也要严正。比如,松树放在奇岩怪石旁边比较好,长长的竹子最好种在庭院的西北边。虽然小花无论种植在花坛或池畔都可以,但红桃和碧桃种植适宜在东边院内,让花枝拂过围墙,开门时便有优雅的韵味;青桐适宜种在东边的院子,使其最先享受新月的月光,最好不要靠近池塘。

菊花最好种在东边的篱笆下,梅花最好种在水边的土地上,芭蕉最好在水边的亭子或凉爽的楼台旁与莲花搭配种植。尤其是莲花和芭蕉是避暑的植物。下面我来读一篇徐有渠的文章。

芭蕉最好与莲花搭配种在水边的亭子或凉爽的楼台旁。古人说:"种满万株莲花,用芭蕉遮荫百余坪,人的灵魂就会变得芬芳,皮肤就会变得翠绿",这是避暑的最佳方法。不得遮挡美丽的竹子、兰草和萱草。佛手喜欢树荫,最好种在芭蕉下,玉兰尤其是种在水边好,若想种植不同的种类,使其前后开花,最好乱种。

若是院子宽敞的房子,我想照做试试。在盛夏的酷暑中,将芭蕉和莲花排列种植,在其阴凉处,灵魂就会变得芬芳,皮肤变得翠绿,这句话很精彩。并且对竹子、玉兰这种较大的树木,以及萱草,佛手这种小草适宜在哪里种植,如何种植都作了详细的说明。是不是与现代的造景方式值得一比呢?

与此同时,姜希颜在种植花树的同时,也强调了韵味。在养花小录中,很多地方都出现有韵味地摆放花的方法。姜希颜还提出了照着灯赏花的方法。就是把兰草放在桌上,点亮灯,然后欣赏它的影子映在墙上的方式。这便有像是在欣赏用水墨画的兰花一般的效果。

姜希颜提出的用烛火影子赏花的方法,后来也继承为朝鲜的文人富有韵味的赏花。作为士林的公敌而被列入在《奸臣列传》的人物,16世纪的金安老,把朋友送来的梅花盆栽照在灯光下,享受了斜枝稀疏的影子清晰地映在墙上的乐趣。并让儿子金禧把它画成画。特别是在朝鲜后期,这种方法也被应用到菊花上。实学者丁若镛的菊花影子游戏广为人知,这点以后再讲。

18世纪上半叶,李胤永、李麟祥等具有喜好享受的文人赏花的同时还用到了冰块。李胤永和李麟祥是画家,也是名望很高的文人。在他们的密友当中,有一位叫吴瓚的人,这位先生的家就在今天的溪山洞。他家来了一群喜爱享受的朋友,饶有兴致地赏玩了花树。

寒冬梅花盛开后,在放入梅花的神龛里打孔,用云母堵住,然后通过云母观看盛开的梅花。这是通过透明的云母看到梅花。它的光使之看起来如月光下映照的梅花。为了增添品位,还摆放了当时在中国很流行的周公为文王制作的模仿文王鼎的锅和其他古董。



此外，在深夜里，在一个大的白瓷碗里盛上清澈的水，放在门外冷冻之后，在中间挖个洞，放入蜡烛点燃。冰和蜡烛融合在一起，形成了梦幻般的梅花鉴赏。这种方式就像在水晶杯里点蜡烛提高照明效果一样。莲花也以类似的方式赏玩。下面来读两篇描述他们赏花的文章。

李胤永用手折断刚要开的莲花，放到有荷叶的水中，叫任迈把玻璃酒杯放在花中间。李麟祥在酒杯中点燃了蜡烛。灯光映照了玻璃酒杯，酒杯映照了花。花光与水光又照亮了叶子。外面是绿色，里面是银色，明亮而耀眼。此时，月亮从西窗进去，洒下美丽的光芒，像白昼一样明媚。任迈又仿照碧筒饮，在荷叶里装上酒，在其枝干上打孔吸着喝。按照自己想喝方式一点一点地吸着喝，香气溢满口腔。

冬天吴瓚听说梅花开了，和李麟祥等人去山泉斋聚集。在梅花瓮里钻了个圆孔，用云母挡住，结果白色的花瓣变得明亮，仿佛在月光下看见的一般。把文王鼎摆放在旁边，其他几件石器也很清秀，符合心意。在一起谈文学和历史。到了半夜，吴瓚拿来一个白瓷大碗，盛了清水，放在门外。过了一会儿，冰结成了两成厚的冰。在中间挖个洞，倒入水后盖上碗，放在台上，亮晶晶的，就像银瓶一样。通过小孔放入蜡烛点燃。火光泛着微红的光芒，畅快之情难以言喻。

他们在京畿监营的西池举行了观赏莲花的聚会。这时，李胤永折下正要开放的莲花，放在有荷叶的水里，叫朋友把玻璃酒杯放在花中间。然后，李麟祥在酒杯中间点上了蜡烛。

灯光映照在玻璃酒杯上，酒杯映照着花。花光和水色又照亮了叶子。外面是绿色，里面是银色，明亮而耀眼。喝酒也该在这样的氛围中喝。碧筒饮是用荷叶的叶茎饮酒。是将像大象鼻子一样贴在荷叶上的茎管弯曲，打通通向叶茎的地方，在那里倒酒喝的方式。以前的文人喝酒避暑，最雅致的方式就是碧筒饮。

有句话叫“饮酒避暑”。就是喝酒避暑的意思。但是盲目地喝酒是没有韵味的。看到莲花盛开，荷叶覆盖着碧绿的池塘，我也很想体验一番在荷叶的叶茎里钻个洞喝上一两杯酒避暑的雅致。如此，养花享乐的雅致非同一般。赏花若想增添雅致，就需要这般努力。

观赏莲花就是避暑兼喝酒。第二篇文章中的梅花鉴赏是寒冬、春节前后的雅致的酒席。地点是位于溪山洞吴瓚的家。在这个时期，把青铜器遗物之类的古董和闹钟之类的新文物并排放在书房里作为知识分子优雅的情趣，一度非常流行。

在此之上，他们加入高洁的梅花，在冰块中放入蜡烛，用灯光来欣赏梅花，也就是举行了所谓的冰灯宴。冰灯宴是指点亮冰灯的宴会。不只是看花，稍微下功夫的话会有更有韵味。所以说玩也得下功夫。



以上我们考察了姜希颜是怎样的人，他编写的《养花小录》是怎样一本书。下节课我们将直接阅读《养花小录》的重要章节，进一步学习。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다음 중 『양화소록』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기술로 올바른 것은?

5분

- ① 강희안이 편찬하였다.
- ② 강희안은 조선 초기 문인이다.
- ③ 강희안이 『진산세고』에 넣어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 ④ 목판본 『진산세고』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양화소록』은 조선 초기의 문인 강희안이 편찬한 책으로, 강희안의 아우 강희맹이 『진산세고』에 넣어 간행하였으며, 이 목판본은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은 정확한 기술입니다.

02 다음 중 『양화소록』에 내용에 대한 기술로 올바른 것은?

5분

- ① 주로 마당에서 키우는 꽃과 나무를 대상으로 하였다.
- ② 꽃과 나무 외에 괴석도 대상으로 하였다.
- ③ 편찬자의 체험과 견문은 배제하였다.
- ④ 중국 문학 작품은 수록하지 않았다.

정답 ②

해설 『양화소록』은 화분에서 키우는 꽃나무를 중심으로 하되 괴석도 넣었습니다. 중국의 문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험과 견문, 일화를 수용하고 관련한 중국의 명문과 한시를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②가 정확한 기술입니다.



03 피서를 겸하여 술을 마시는 풍류 '벽통음'을 할 때 사용한 식물은?

5분

- ① 매화
- ② 백일홍
- ③ 연꽃
- ④ 국화

정답 ③

해설 여름철 피서를 할 때 연잎과 연결된 대궁을 구부리고 여기에 술을 부어 마시는 풍속을 벽통음이라 하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04 다음 중 연꽃을 비유한 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5분

- ① 매화
- ② 백일홍
- ③ 연꽃
- ④ 국화

정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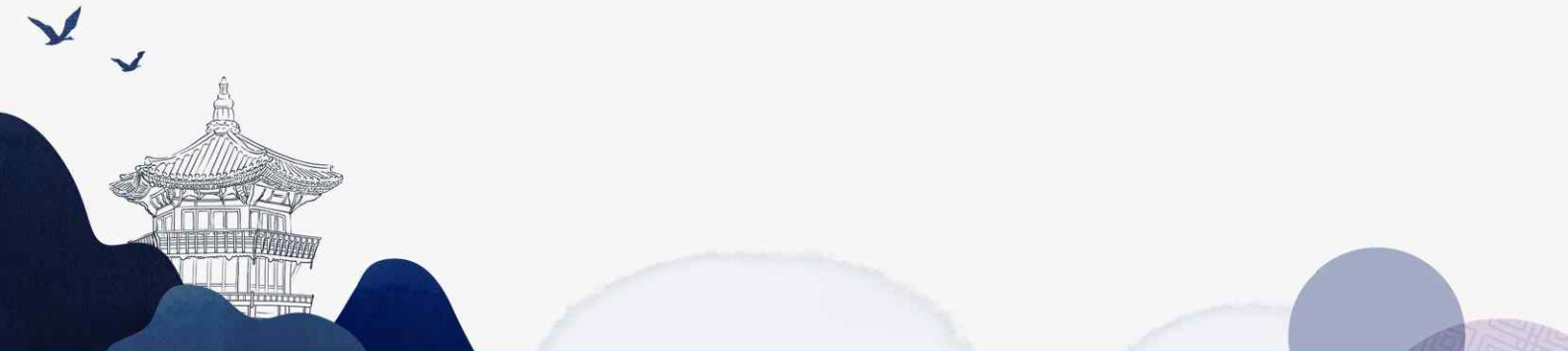
해설 군자, 정 등은 연꽃의 별칭이고, 주염계의 <애련설(愛蓮說)>의 영향으로 주염계를 경모한다는 뜻의 경련도 연꽃을 가리킵니다. 창관은 소나무의 별칭입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 됩니다.

주제

『양화소록』은 꽃과 나무, 바위를 화분에 재배하는 방법과 함께 운치 있게 즐기는 방법을 함께 적은 책이다. 이 강연에서 다루지 않은 꽃과 나무, 바위 등을 즐길 수 있는 참신한 사례 혹은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해보자.
(60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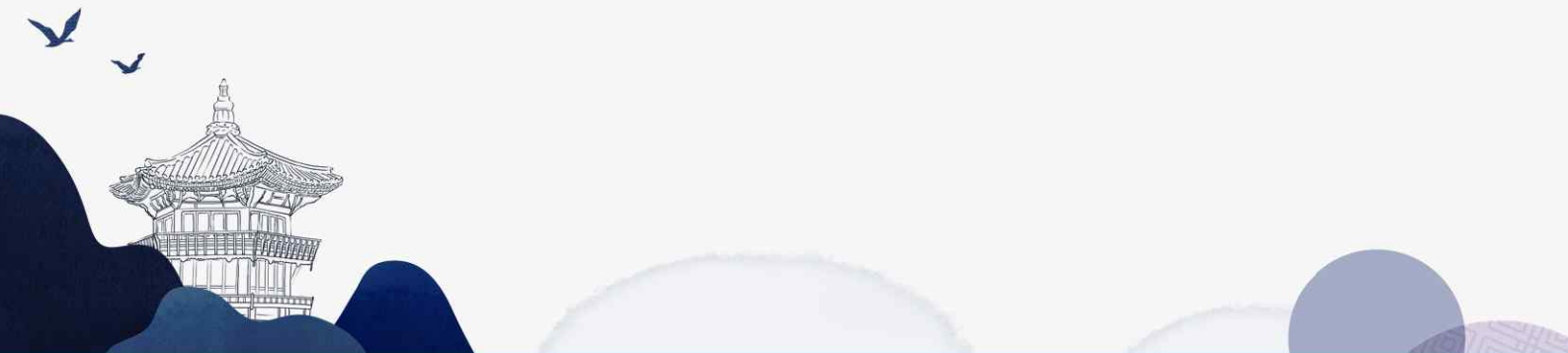
강연에서 국화나 매화를 촛불 그림자를 이용하여 운치 있게 즐기는 법을 소개하였는데, 이를 응용하여 활용하여 창과 천장에 꽃 그림자가 비치게 하는 실내장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도서

-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1, 2, 3), 이상희, 넥서스, 1998**

내무부 장관을 지낸 저자가 꽃과 관련한 동아시아 고금의 문헌과 자료를 망라하여 우리나라 화훼의 문화사를 본격적으로 정리한 고전이라 할 만합니다. 식물학적 지식에 더하여 한국인의 꽃에 대한 미의식, 꽃과 민속, 꽃과 문학, 꽃과 예술, 꽃에 얽힌 전설 등 문화사로서 화훼의 의미를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 **화암수록, 꽃에 미친 선비, 조선의 화훼, 유박 저, 정민 역, 휴머니스트, 2019**

정민 교수가 이상희 장관이 발굴한 유박의 『화암수록』을 역주한 책입니다. 『화암수록』은 꽃에 미친 학자라 할 수 있는 유박이 평생에 걸쳐 저술한 화훼의 종류와 별칭, 습성, 열매, 향, 기를 때의 유의점 등을 자세히 적고 화훼의 등급을 나눈 후 짧게 평을 하였으며, 개화 시기를 월별로 정리하고 화훼와 관련한 시문을 수록했습니다. 이 책은 『양화소록』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원예서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야기가 있는 나무백과(1, 2, 3), 임경빈, 서울대출판문화원, 2019**

임경빈 교수가 1976년부터 2002년까지 일지사에서 출간한 총 6권의 『나무백과』를 3권으로 재편집한 책입니다. 식물학적 정보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고문헌에 등장하는 나무에 대한 기록, 고사와 전설, 해외의 유사한 나무와의 비교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스케치와 사진이 함께 실려 있어 꽃과 나무에 대한 가장 폭넓은 지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시마중, 생활의 시학, 계절의 미학, 이종묵, 태학사, 2012**

이 책은 조선시대 운치 있는 한시를 계절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그 중 국화, 감나무, 단풍, 매화, 동백, 봄나물, 장미, 연꽃, 백일홍 등을 소재로 한 한시를 소개하여, 조선시대 화훼와 관련한 한시를 즐기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 돌아앉으면 생각이 바뀐다, 격물과 성찰의 시간, 이종묵, 종이와 나무, 2016

조선시대 문인들의 글 중에서 사물을 매개로 한 성찰을 보여주는 글을 뽑아 해설을 붙인 책으로, 이번 강의에서 다른 다양한 꽃과 나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

- 격물과 성찰의 공부

- <https://tv.naver.com/v/23988024>
- '서울대 지식교양강연-생각의 열쇠'의 하나로 필자의 강연을 촬영한 '격물과 성찰의 공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른 꽃과 나무와 함께 다른 사물에 대한 성찰의 공부를 다룬 것입니다.

